



독도 교육 참고 자료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

독도는 국권을 상실한 시대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가 되찾은 우리 땅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독도 관련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에 관한 교육을 차츰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편입 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살아있는 역사문제이자 대한민국 주권 수호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때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발맞추어 초·중·고등학교 독도 관련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다.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 대상과 목표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자료만 소개한다. 그래서 내용의 이해를 돕는 기타 옛 문헌이나 지도는 교사나 학생이 직접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 『독도 교육 참고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에 필요한 옛 문헌과 지도, 사진 자료들을 망라함으로써 독도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자료들의

실질적 정보, 즉 자료의 크기, 형태와 출처 등을 보여주고 있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도 교육의 참고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단행본 형태로 독도 관련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교육 및 활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교육 참고자료』가 독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 특별히 독도 관련 문헌, 지도, 사진 등을 제공해주신 분들과 독도 관련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차례 |

1.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 발간사 2
- 일러두기 6

- 독도의 위치 10
- 독도의 지형과 지명 12
- 독도의 기후, 해저지형과 지질 26
-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28
- 독도의 사계 34
- 독도의 일출과 일몰 36

4. 독도와 함께 한 사람들



- 울릉도·독도와 관련 있는 역사 속 인물 108
- 독도를 사수한 독도의용수비대와 경찰 110
- 독도 주민들의 삶과 자취 113
- 현재 독도 주민과 시설 114
-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116
-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활동 117

5. 영원한 우리 땅 독도



- 독도의 생태계 126
- 천혜의 관광자원 132
- 해양심층수와 지하자원 134

2.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



- 독도의 명칭 40
- 우리나라 독도 관련 문헌 42
-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60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74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 일본의 독도 침탈부터 소위 '죽도의 날'까지 80
- 일본의 독도 침탈 82
- 독도 관련 역사왜곡 일본 중학교 교과서 86
-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92

부록



-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 내용체계 138
- 사진자료 출처 144
- 찾아보기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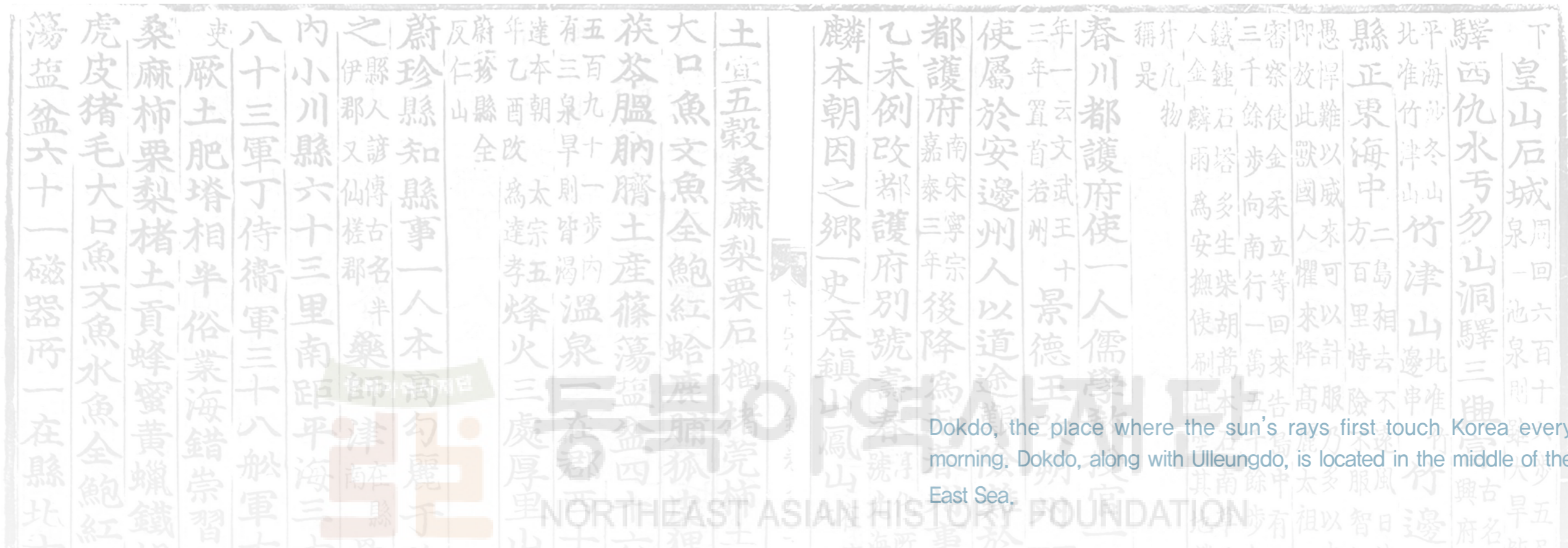
| 일러두기 |

1. 이 책은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독도 교육과 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거나 일부 자료를 추가 또는 제외하였다.
2. 독도 관련 자료의 이름과 발간 년도 등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현재 사용하는 독도 홍보표준지침을 따라 표기하였으며, 부록의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 내용체계」에 수록한 자료 이름과 발간 년도도 이와 같게 수정, 표기하였다.
3. 이 책에 실린 문헌과 지도 등 자료에 관한 설명은 『일본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동북아역사재단, 2011년),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0),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국립중앙박물관, 2006) 등에 있는 내용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등 독도 관련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
仇水巧勿山洞驛三興富興古名德神
竹津山竹津山北邊竹邊串北道山
東海中方百里相去不遠風日清明則
難以威來可以計險乃多智證王十二
此獸國人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



Dokdo, the place where the sun's rays first touch Korea every morning. Dokdo, along with Ulleungdo,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곳이다.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독도는 울릉도와 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독도는 울릉도보다 210만 년 먼저, 제주도보다 340만 년 먼저인 460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독도의 육지 면적은 0.18km²이지만 해저 높이가 2,000m, 하부 지름이 30km나 되는 거대한 화산섬이다. 바다 위로 솟아 있는 독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대 소국 우산국에서 유래하여 '우산도'라고 불리었던 독도(獨島)는 '독섬(돌섬)'에서 온 말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섬이다. 동해를 지나는 모든 태풍이 거의 빠짐없이 독도를 강타하지만 독도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을 보여주듯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독도는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등 바닷새의 천국이며,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아름다운 야생화와 나무들이 시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푸름을 더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땅이다.

This rocky island, which is visible from Ulleungdo on a clear day, is closely related with Ulleungdo culturally and historically. Scientific research shows that Dokdo began to form 4.6 million years ago, earlier than Ulleungdo by 2.1 million years and Jeju do by 3.4 million years. The surface area of Dokdo is only 0.18 square kilometers above sea level, but it is in fact a huge volcanic island, with a diameter of about 30 kilometers; it is seated up to 2,000 meters below sea level. The rocks above sea level are the tips of an iceberg.

Dokdo was once called 'Usando', a name that originated from a tiny ancient Korean state called 'Usanguk (meaning 'the State of Usan')'. The name 'Dokdo' came from 'Dokseom' (or 'Dolseom', meaning 'rocky island'). Almost all the typhoons blowing in from the East Sea hit the island, but it stands solid, striking a majestic figure. The island is a safe haven for many sea birds including black-tail gulls and fork-tailed petrel, and offers rich fishing grounds for Korean fishermen. It is also a sanctuary for some rare plant species and exquisite wild flowers. Dokdo is a gem of the Korean territory that should not be lost.



독도의 위치

수리적 위치

동 도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 도 :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지리적 위치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117.1 해리)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47.2 해리)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에서는 157.5km(85.0 해리)

※ 1해리(海里) = 1.852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약 1.8배 가깝다.

행정적 위치

독도의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 799-805)

동 도

경 비 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등 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서 도

주민숙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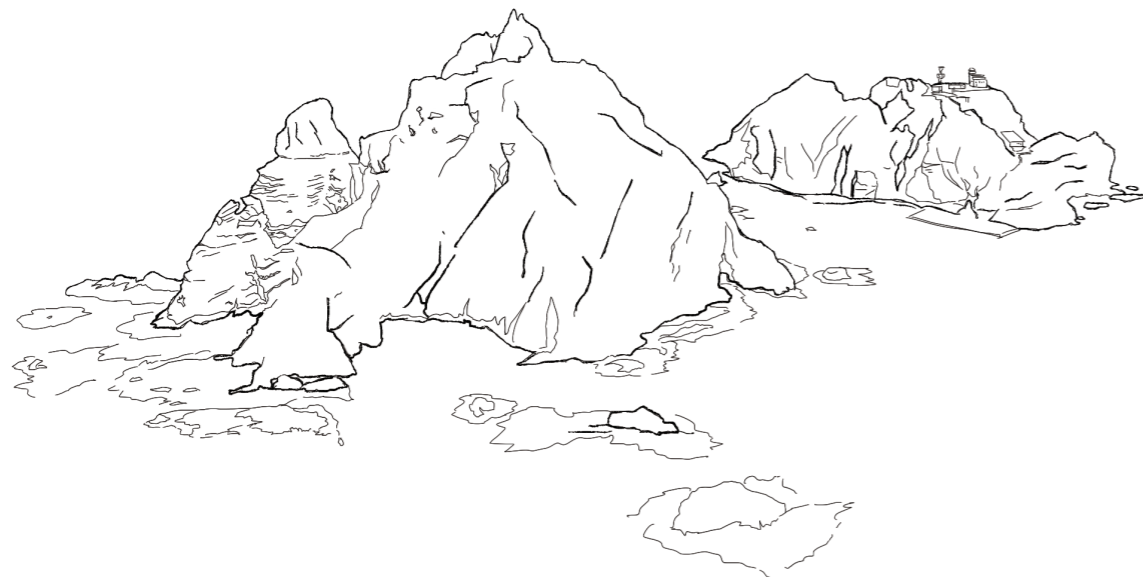
▲ 한반도(울릉도, 독도) 위성사진



독도의 지형과 지명

독도의 면적은 187,453㎡로, 서울의 표준 규격 축구장(7,350㎡)보다 약 2.6배나 넓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큰가재바위,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등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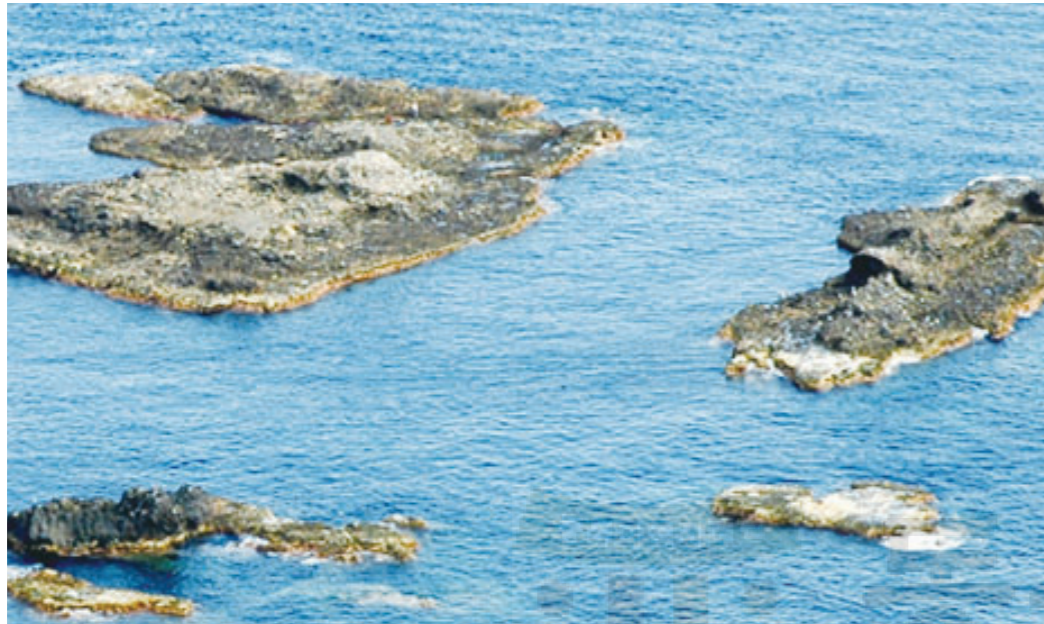
구분	면적	높이	둘레
동도	73,297㎡	98.6m	2.8km
서도	88,639㎡	168.5m	2.6km
기타 부속도서(89개)	25,517㎡		
합계	187,453㎡		



▲ 독도의 지형과 지명



부속도서 등의 지명과 유래



▲ 큰가제바위 및 작은가제바위

가제 곧 강치가 출현하는 바위라고 하여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려온 지명이다.
바위의 크기에 따라 큰가제바위(왼쪽), 작은가제바위(오른쪽)라고 한다.



▲ 넙덕바위

'넙덕'은 '넙적'하다는 의미하는 현지 방언으로 구전되어온 지명이다.



▲ 지네바위

'이진해'라는 어민이 매년 미역을 채취하던 바위로 '진해'가 '지네'로 불린 지명이다.



▲ 김바위

김은 해태(海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려온 지명이다.



▲ 보찰바위

보찰은 거북손으로 따개비와 유사한 서식 해산물로, 보살바위라고도 불렀다.



▲ 미역바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미역 채취를 많이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촛대바위

바위의 독특한 모양에 따라 붙여진 지명으로 장군바위라고도 불렀다.



▲ 물골

탕진봉 밑 해변에 위치하여 하루에 400ℓ 정도의 물이 고이는 곳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군함바위

군함과 같은 독특한 모양으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려온 지명이다.



▲ 촛발바위

촛발은 갑, 꽃 등 튀어나온 곳을 의미하는 현지 방언으로 구전되어온 지명이다.



▲ 삼형제굴바위

3개의 동굴이 있는 바위의 형상에 대해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려온 지명이다.



▲ 닭바위

서도의 주민숙소에서 바라볼 때 마치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탕건봉

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봉우리 형상이 탕건과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 탕건 :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말총으로 길게 줄을 세워서 뜬 관건(冠巾)으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저 있다.



▲ 부채바위

남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어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려온 지명이다.



▲ 코끼리바위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독특한 모양에 대해 붙여진 지명이다.



▲ 물오리바위

물오리 서식지로서 물오리는 바다 가마우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러온 지명이다.



▲ 솟돌바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생활할 당시 칼을 갈았던 곳으로 바위의 암질이 솟돌과 비슷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얼굴바위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독특한 모양으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러온 지명이다.



▲ 독립문바위

독립문 형상의 독특한 모양에 대해 현지 어민들이 붙인 지명이다.



▲ 한반도바위

북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반도 형상과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 천장굴

분화구라고도 하였으나 학계에 의하면 침식에 의해 함몰로 생긴 천장동굴로 불린 지명이다.



독도의 기후, 해저지형과 지질



▲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서도와 동도)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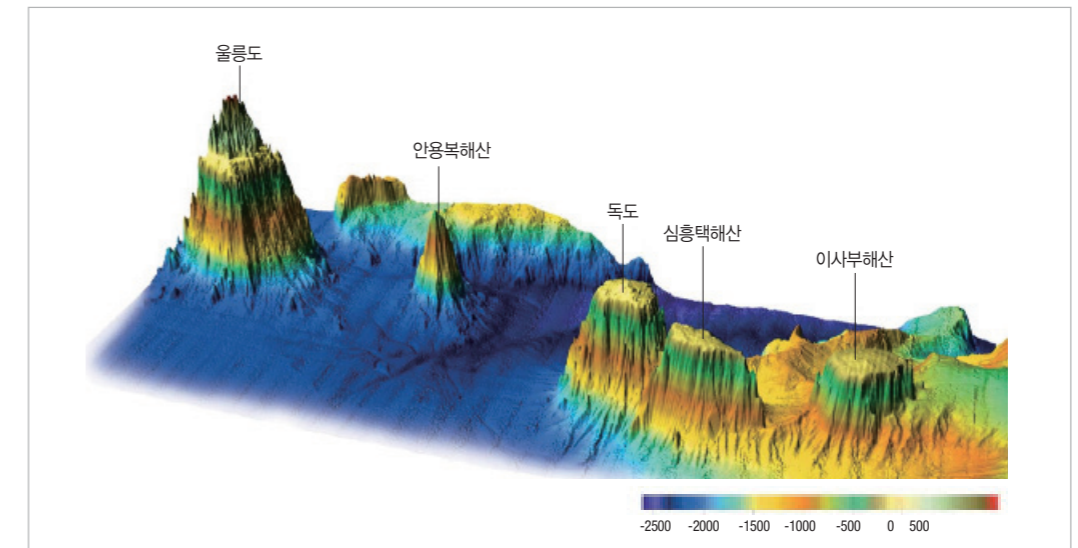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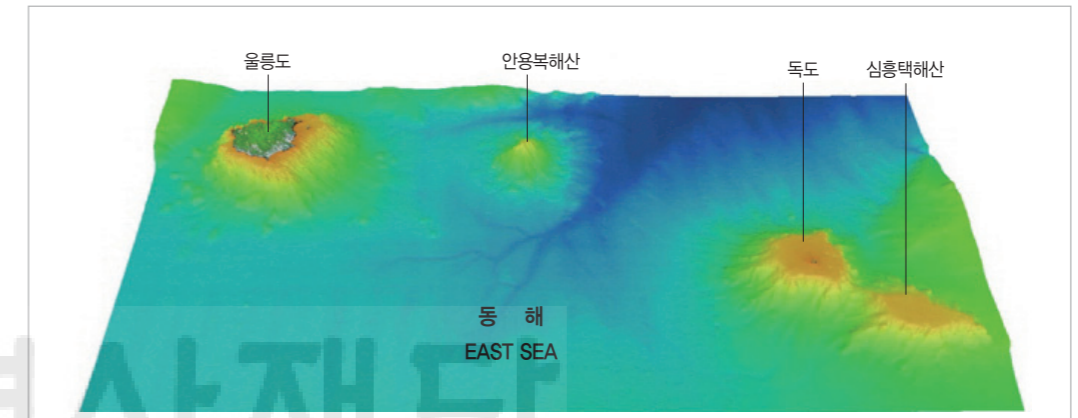
독도는 연평균 기온이 12℃로 같은 위도 상에 있는 한반도 내륙에 비해 온난하다.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평균 기온은 24℃를 넘지 않는다. 독도의 연평균 풍속은 4.5m/sec로 전국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다. 주로 여름에는 남서풍, 겨울에는 북동풍이 분다. 연평균 강수량은 1,240mm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는다.

지형과 지질

독도는 동해 바다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전형적인 화산섬이다. 독도는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는데, 이는 울릉도(약 250만 년 전 ~1만 년 전) 및 제주도(약 120만 년 전 ~1만 년 전)보다 앞선 시기이다.

독도는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수면 위는 주로 안산암이고 아래는 현무암이다. 암석층 위에 얇은 토양이 쌓여 있고 대부분 경사 30도 이상의 가파른 평행 사면을 이루면서 퇴적되어 있다.

독도는 높이가 2,000m가 넘고 하부 지름이 30km에 이르는 거대한 화산(독도해산)의 일부다. 독도해산은 상부가 여의도보다 10배나 넓은 정도로 평평한 평정해산이다. 독도해산 동쪽에는 심홍택해산, 이사부해산이라는 평정해산도 위치하고 있다.



▲ 독도 주변 3차원 해저지형도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울릉도사적』(1694년) 등 우리의 역사 문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이 상시 관측조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진 중에는 울릉도 어느 농가의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것도 있고, 집마당에 서 있는 전봇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다. 독도는 혼자 외롭게 떠 있는 섬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와 삶을 같이한 우리 일상의 동무이자 이웃이며, 나아가 우리 삶의 터전이다.



▲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요 관측 지점



▲ 울릉도 도동 시내를 배경으로(2008년 11월 12일)



▲ 울릉도 도동 깎기등에서(2008년 11월 12일)



▲ 울릉도 사동 새각단에서(2008년 11월 22일)



▲ 울릉도 사동 새각단에서(2008년 11월 22일)



▲ 울릉도 석포마을에서(2007년 1월 14일)



▲ 울릉도 도동 깎기등에서(2008년 10월 12일)



▲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2008년 8월 7일)



▲ 울릉도 저동 내수전에서(2008년 1월 14일)



▲ 울릉도에서 바라본 육지(2008년 8월 6일)



독도의 사계



▲ 독도의 봄



▲ 독도의 가을



▲ 독도의 여름



▲ 독도의 겨울

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爲池
 仇水弓勿山洞驛三興富與古名府德神古名
 竹津山竹津山邊北准竹竹邊串北准山豆
 泉海中方百里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
 此歌國人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分

2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독도의 일출과 일몰



▲ 독도의 일출과 촛대바위



▲ 독도의 일몰과 갯이갈매기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는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1145년), 『팔도총도』(1531년) 등 다수의 옛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국제법적으로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군수가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1943년)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되었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연합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Dokdo is

geographically

Located adjacent to Ulleungdo, Dokdo is visible to the naked eye from Ulleungdo on a clear day. Residents in Ulleungdo have always considered Dokdo a sister island. According to King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Record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1454), “the two islands [Ulleungdo and Dokdo] ... [are] close enough that they are visible on clear day.” The record easily verifies that Dokdo is the only island visible from Ulleungdo in clear weather.

historically

That Dokdo is an inherent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is evidenced in many historical records and old maps including Samguk Sagi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1145) and Paldo Chongdo (Map of the Eight Provinces, 1531). According to Mangi Yoram (The Book of Ten Thousand Techniques of Governance, 1808), “Dokdo along with Ulleungdo was the territory of Usanguk.” That Dokdo is a Korean island was even officially confirmed by a past Japanese government, as shown in a statement issued by Daijokan (Great Council of State) in March 1877,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akeshima [i.e. Ulleungdo] and the other island [i.e. Dokdo].”

by International Law

In October 1900, the Korean Empire promulgated Imperial Decree No. 41, which placed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Ulleung-gun. The Cairo Declaration (1943) stipulated that with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was to be expelled from all areas it had stolen through violence and greed, making it clear in 1945 that Dokdo was to be restored as a Korean territory. Dokdo was officially excluded from Japan's administrative power in 1946 following SCAPIN 677, an instruction reconfirmed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in 1951.

an inherent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독도의 명칭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호의 항해 일지이다. 그곳에 “한인은 리양코루도암을 ‘독도(獨島)’라고 쓰며, 일본 어부 등은 생략하여 ‘량코도’라고 호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서 중에는 1906년 심홍택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우산도, 가지도, 자산도, 석도 등의 이름으로 문서와 지도상에 나타나 있다.

울릉도 주민들은 한때 이 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이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바로 ‘독섬’의 음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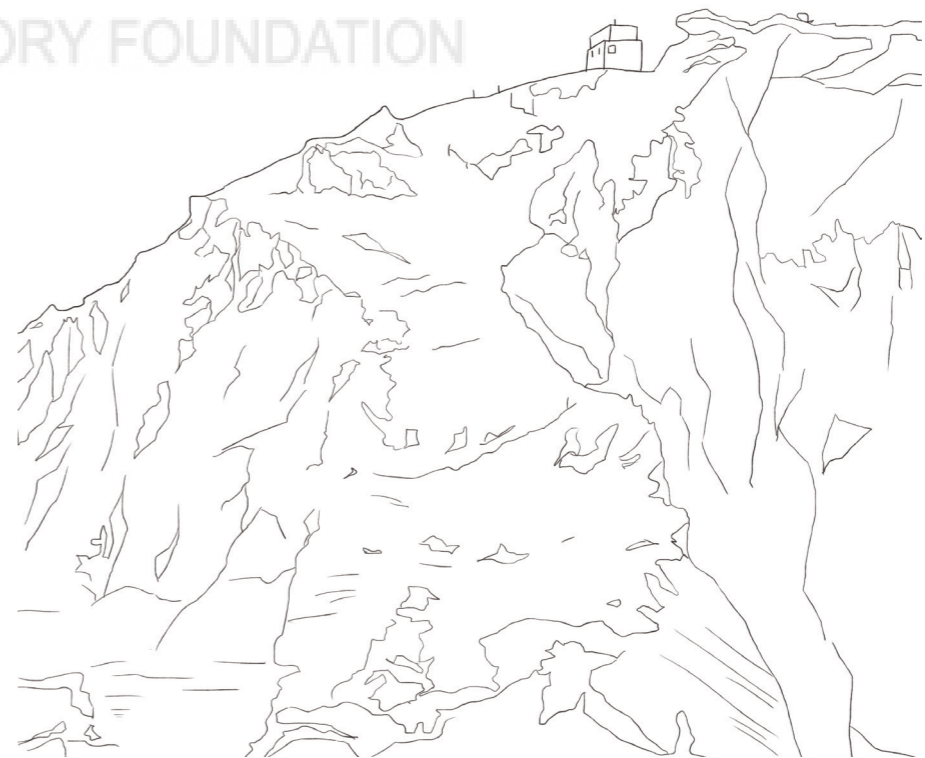
독도 옛 이름

명칭	유래
우산도(于山島)	‘우산’은 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국 우산국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독도의 이름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을 보면 독도를 ‘우산’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가지도(可支島)	‘가지도’는 물개가 많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가지’란 물개의 일종인 강치의 우리말 ‘가제’를 음역하여 부른 것으로, 독도에 강치가 많이 서식한 데서 유래했다. 독도의 서도 북서쪽에는 ‘가제바위’라 불리는 바위도 있다.
석도(石島)	‘석도’라는 명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등장한다.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 ‘독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의 독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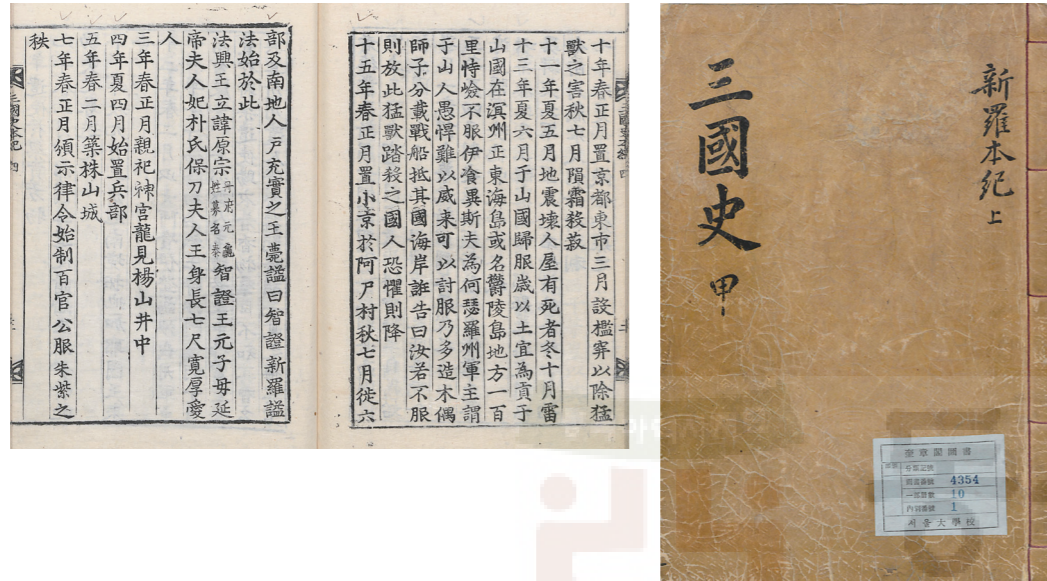
오늘날 일본이 독도를 지칭하는 ‘다케시마(죽도, 竹島)’라는 명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초 일본인들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島)’라고 불렀고,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島)’라고 불렀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독도를 ‘량코도[リャンコド]’ 또는 ‘리양코루도암[リャンコールド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이 명칭은 ‘리양쿠르암[Liancourt Rocks]’에서 온 말로, ‘리양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호의 선박 이름이다. 서양인들은 독도를 ‘리양쿠르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한때 영국인은 ‘호넷암[Hornet Rocks]’, 러시아인은 ‘메넬라이-올리브차[Menelai-Olivutsa]’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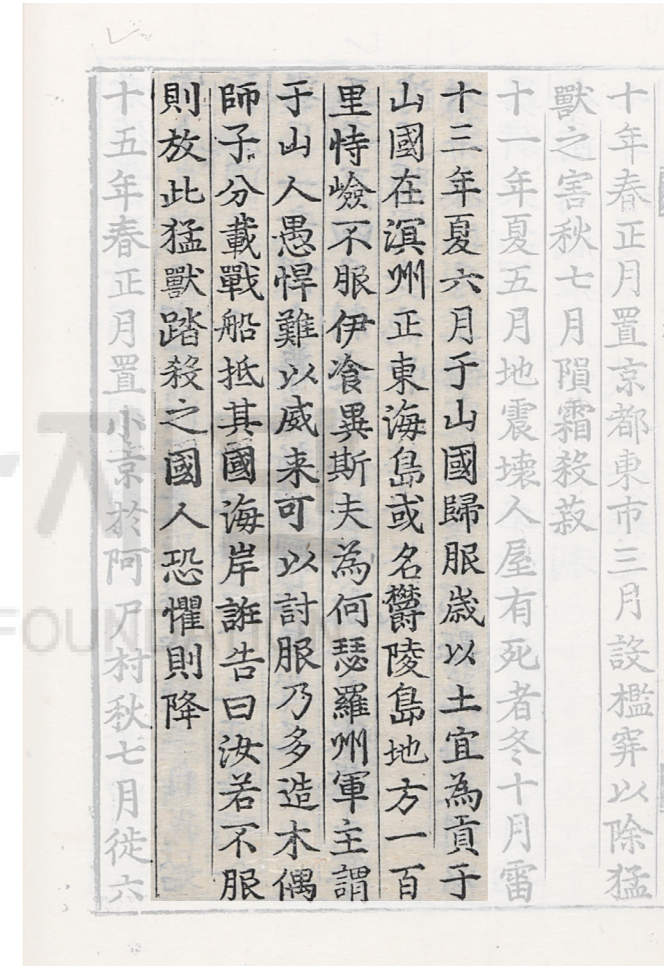
우리나라 독도 관련 문헌

삼국사기



▲ 삼국사기(1145), 20.6×31cm

『삼국사기』는 1145년(고려 인종 23년) 경 김부식(金富弼, 1075~1151)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권4의 지증왕조에는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지지(輿地志)』 등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하여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13년 6월 여름, 우산국(于山國)이 귀복(歸復)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섬은 사방 1백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을 때, 우산 사람들이 우둔하고도 사나우므로 위세로 다루기는 어려우며, 계략으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 세종실록 지리지(1454), 30.2×55cm

세종의 명으로 맹사성(孟思誠, 1360~1438), 권진(權軫, 1357~1435), 윤회(尹淮, 1380~1436) 등이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 보완하여 1454년(단종2년)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부록으로 편입한 것이다. 모두 8책으로 전국 328개의 군현(郡縣)에 관한 인문지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실록』 권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한다.



[원문]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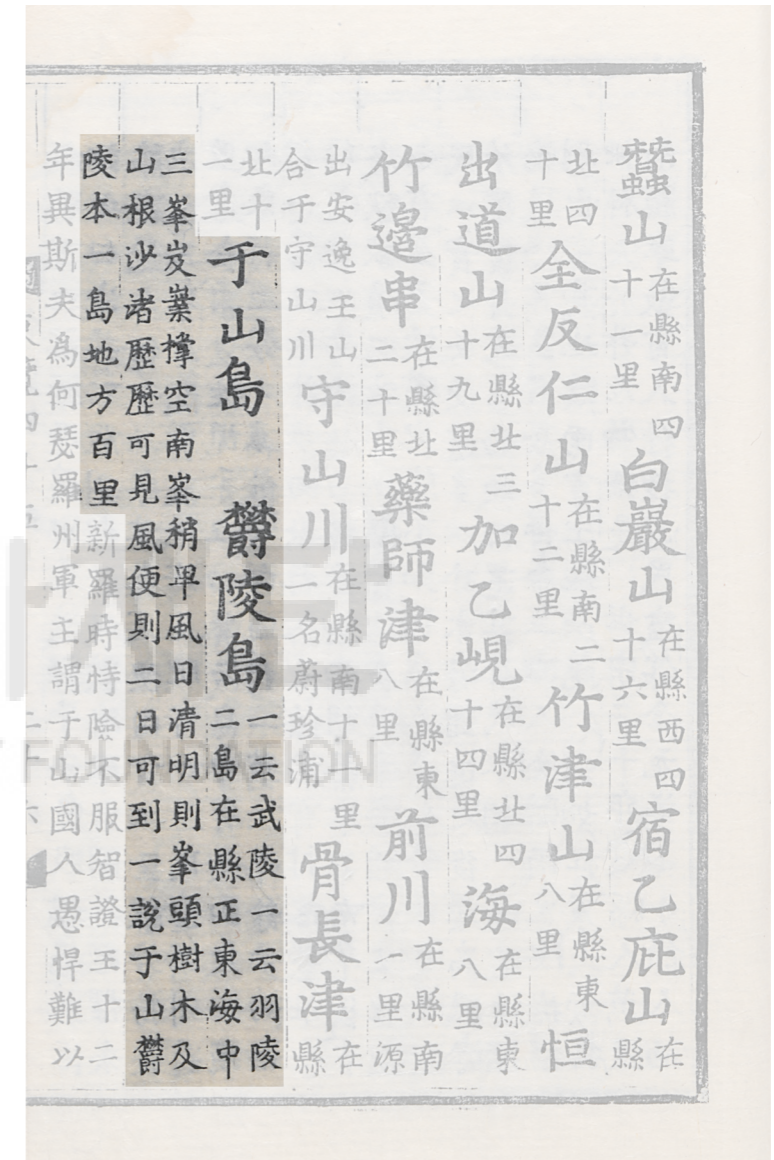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22.1×36.7cm

1531년(중종26년)에 이항(李荇, 1478~1534), 윤은보(尹殷輔, 1468~1544), 신공제(申公濟, 1469~1536) 등이 왕명을 받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하여 편찬한 관찬지리지이다. 이 책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여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문]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들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

팔도총도



▲ 팔도총도(1531), 27×34.2cm

팔도총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이다.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요 산과 하천, 섬, 도(道)와 바다의 명칭 등 간단한 정보만을 수록하였다.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로 표기하고, 동해 지명은 바다가 아닌 동해신(東海神)을 제사하는 강원도 양양에 '동해(東海)'라고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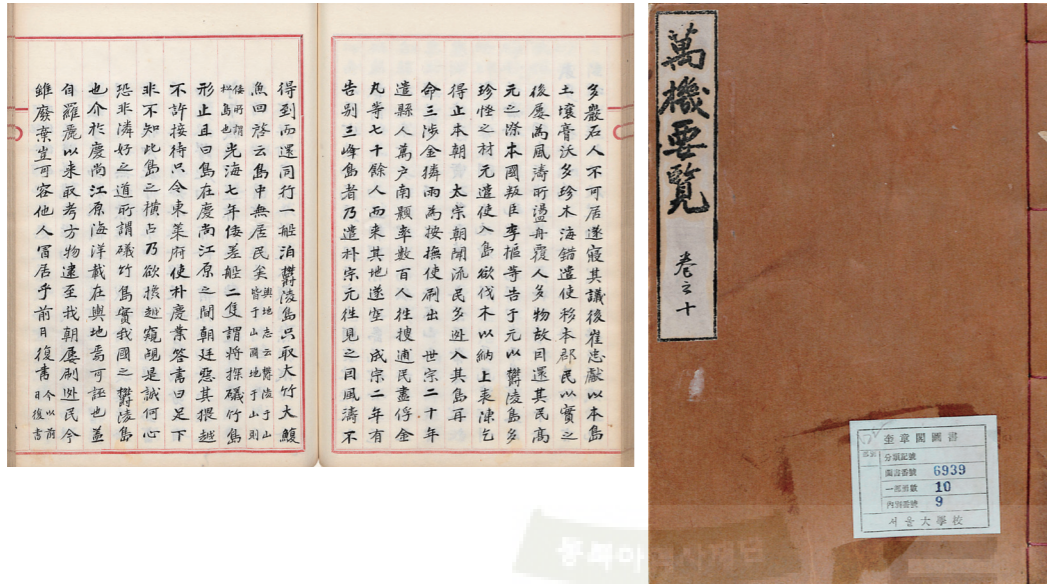
동국대전도



▲ 동국대전도(1755~1757), 139×27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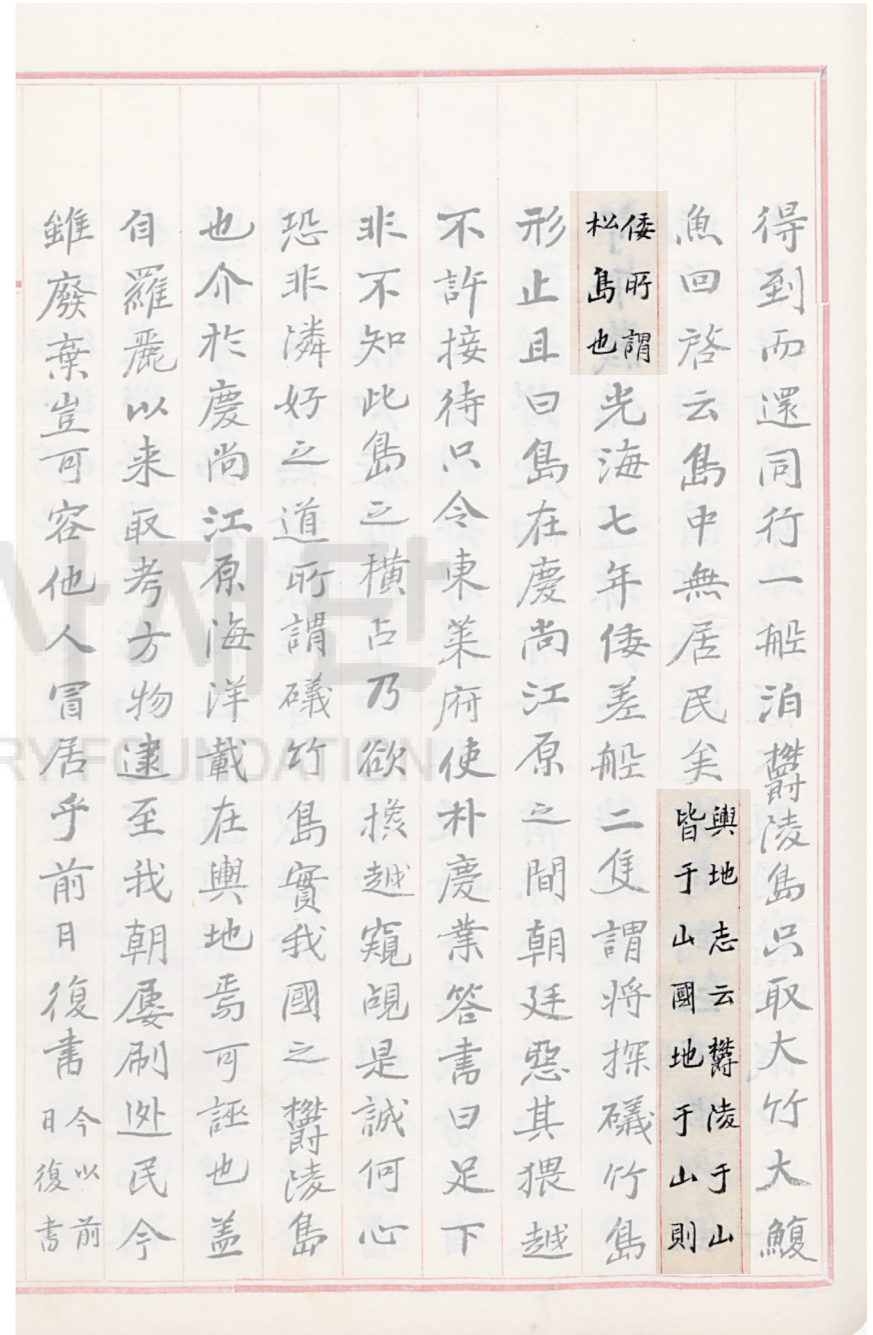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를 필사자가 일부 변형시킨 대형의 조선전도로 만주와 청나라의 동쪽 해안 및 일본을 함께 그렸다. 조선은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한 반면 일본은 조선 전기 계통의 지도에 나타나는 대로 동남쪽에 아주 작게 그렸다. 동해 해역에 울릉도를 나타내고, 우측에는 우산(독도)을 표기하였다.

만기요람



▲ 만기요람(1808), 22×3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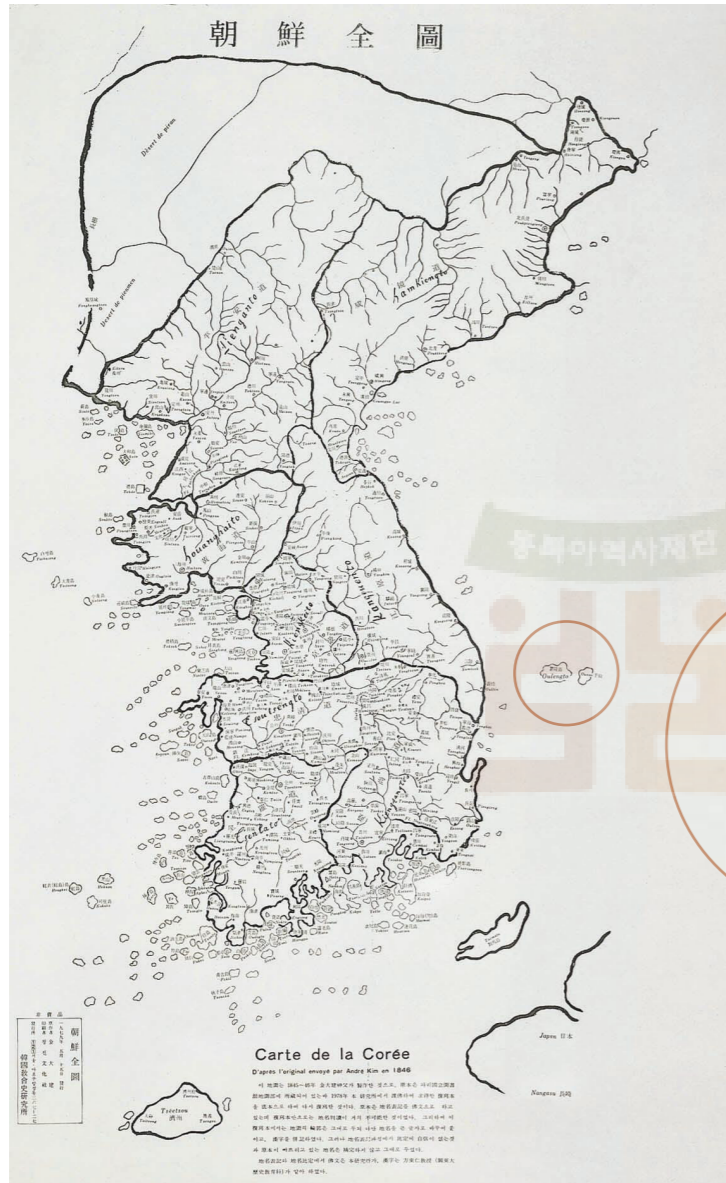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심상규(沈象奎, 1776~1838) 등이 왕명을 받들어 만든 책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재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에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산도가 당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즉 독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원문]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

조선전도



▲ 조선전도(1846), 59×100cm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외국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한국지도로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하였다. 베이징에 있던 프랑스 영사 드 몽티니(De Montigny)에게 이 지도가 전달되면서 한국이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독도는 당시의 명칭 Ousan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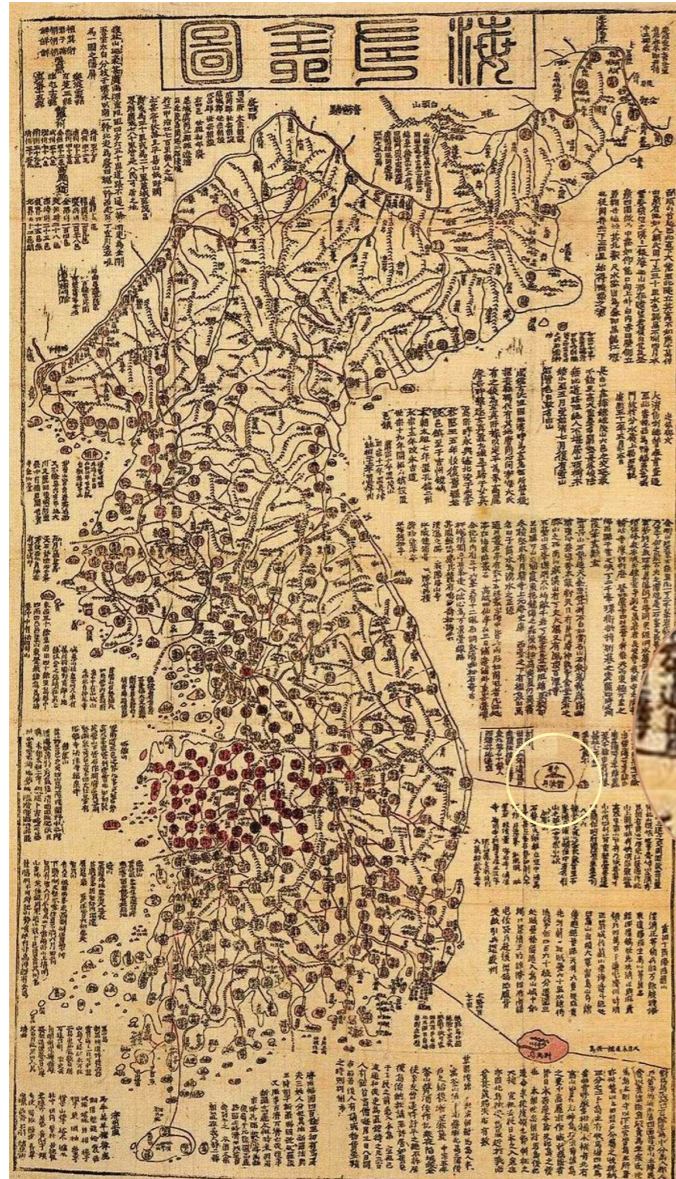
아국총도



▲ 아국총도(18세기 후반), 81.5×151cm

오행사상에 따라 군현의 명칭을 동쪽(강원도)은 푸른색, 서쪽(황해도)은 흰색, 남쪽(전라도, 경상도)은 붉은색, 북쪽(함경도)은 검은색, 그리고 중앙(경기도, 충청도)은 황색 등 5방위 색으로 기록하고 있다. 산과 하천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바다에는 작은 섬의 명칭까지 적었다. 바다는 그 위치에 따라 동해(東海), 서해(西海), 남해(南海)로 표기하였고, 독도를 우산(于山)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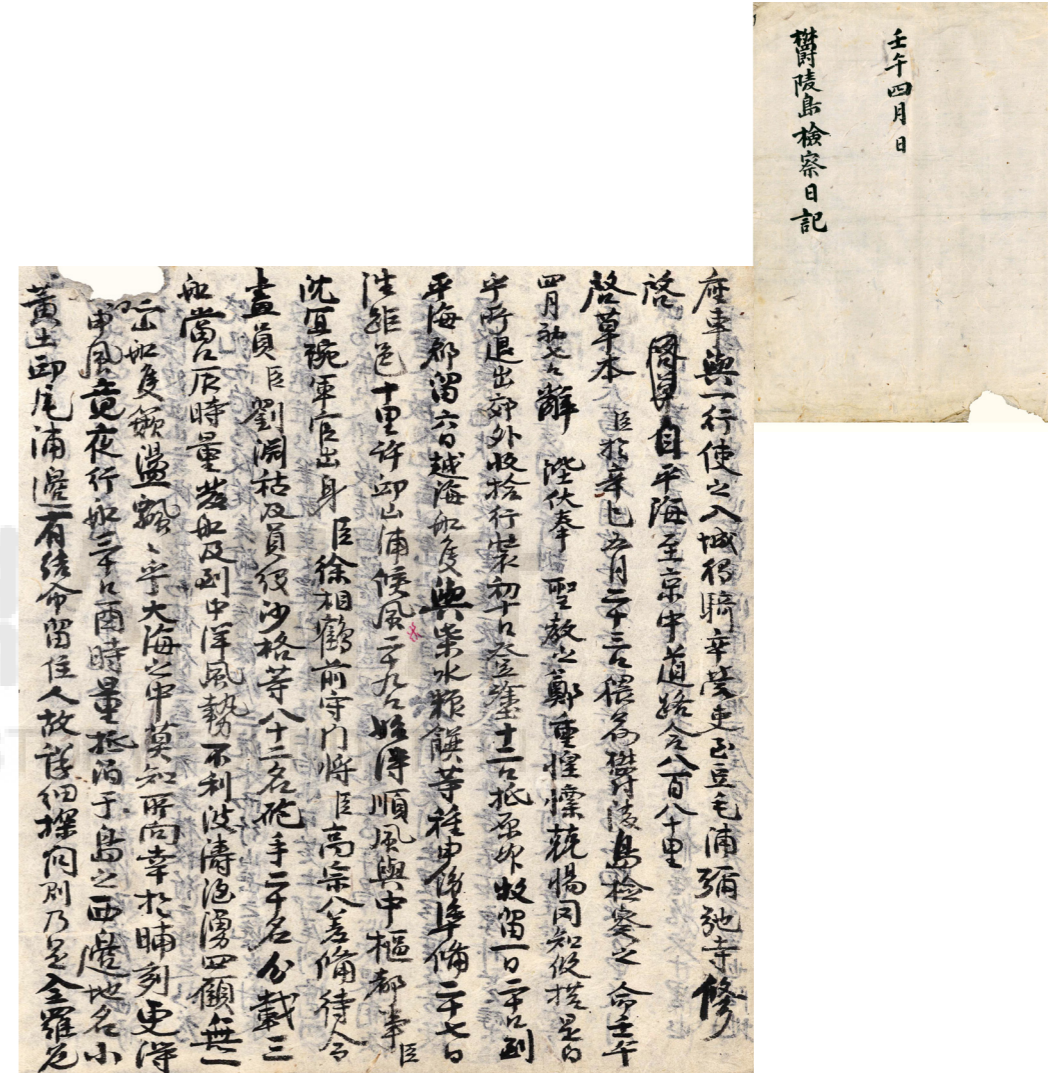
해좌전도



▲ 해좌전도(19세기 중기), 56×98.3cm

목판본 조선전도로서 지도 여백에 지리, 역사 등 인문지리적 내용이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그 동쪽에 독도(우산도)를 표현하고 주기를 달았다. 여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국의 역사, 즉 이곳이 본래 우산국으로 신라의 이사부가 항복을 시켰다는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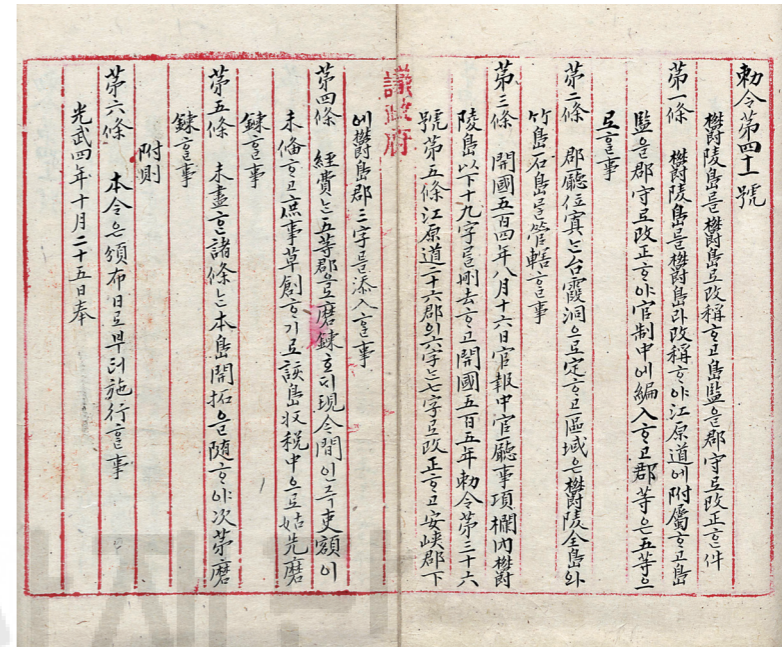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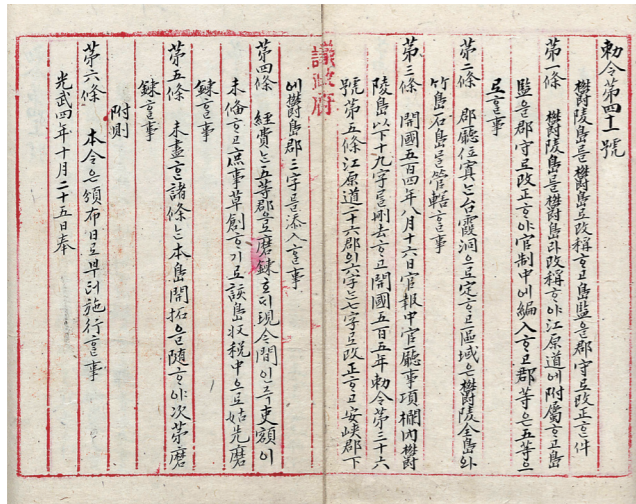
울릉도 검찰일기



▲ 울릉도 검찰일기(1882), 28.5×29cm

1881년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던 울릉도 수토관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입도하여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든다고 보고했다. 1881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울릉도 사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규원 검찰사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울릉도 조사단을 이끌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일본인들의 불법 입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사하였다. 이규원은 그 검찰 과정을 『울릉도 검찰일기』에 남겼다.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는 400여 년간 빗장이 채워져 있던 울릉도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27.5×33.4cm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고종37년) 10월 25일자로 전문 6개조의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을 결정하였다. 이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이 칙령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 본섬에서 직경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서 울릉도 주민들은 이 섬을 대섬(대나무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죽도(竹島)는 대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석도(石島)는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의 관보 게재를 통해 독도가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적으로 알렸다.

[원문]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는 칠자(七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함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할 사(事).
-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호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할 사(事).
- 제5조: 미비(未備)한 제조(諸條)는 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하야 차례(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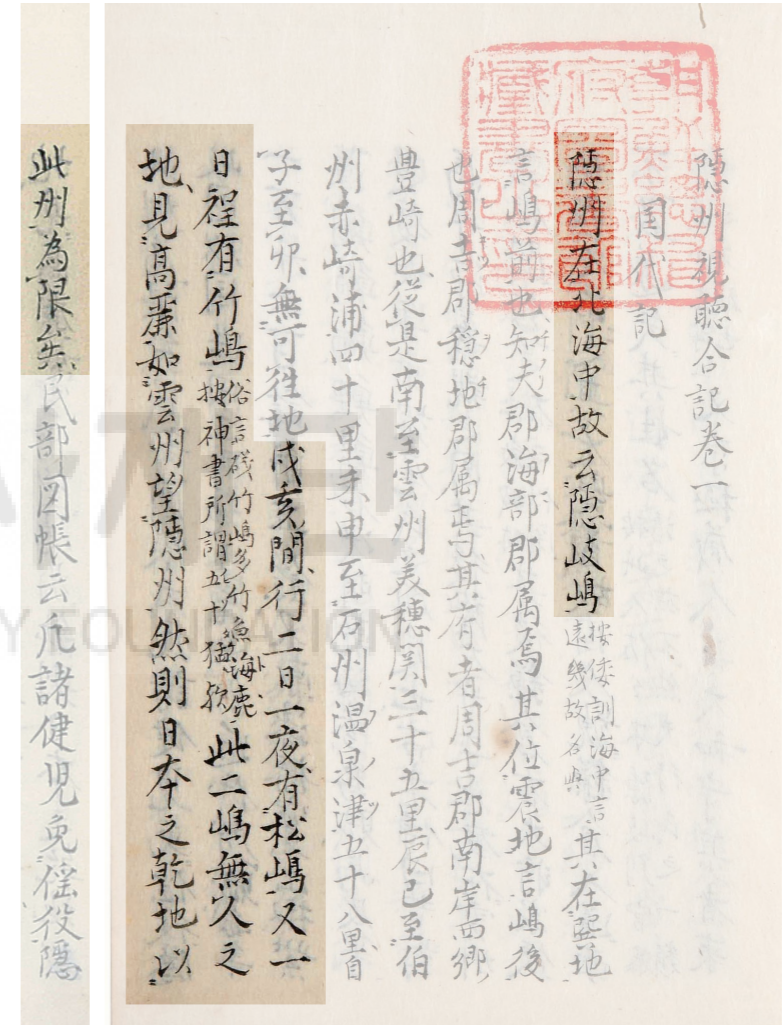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은주시청합기



▲ 은주시청합기(1667), 16.4×23.7cm

일본의 지방관리가 1667년 오키섬을 둘러본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오키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일본의 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편집자 주 : 위에 추가된 이미지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원문의 해당 내용을 붙인 것임.

[원문]

인슈[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다. 옛날에는 오키섬[隱岐島]이라고 했다. [...]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또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에서 오키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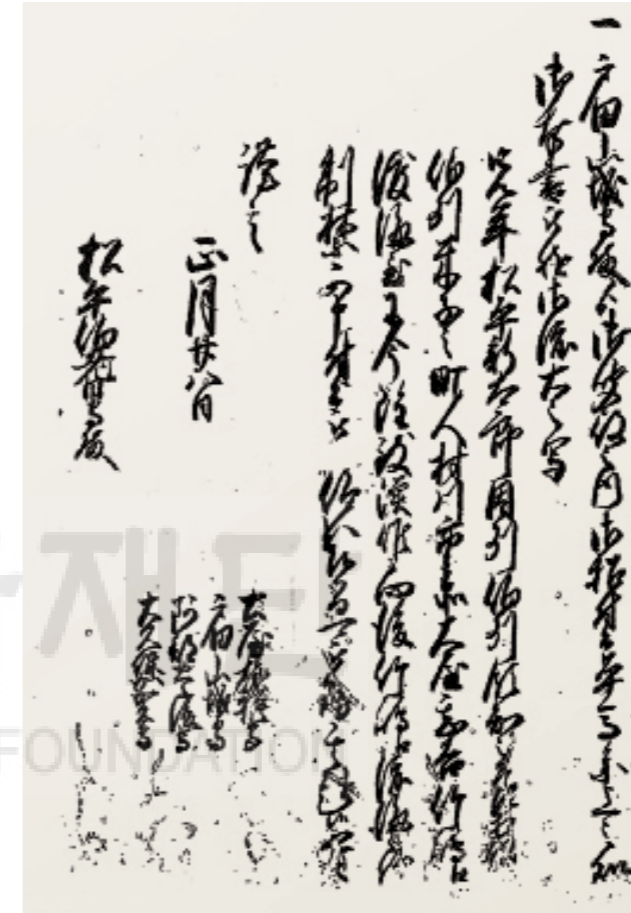
▲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1695)

[원문]

죽도(울릉도)는 이나바[因幡], 호키[伯耆]부속이 아닙니다. 호키국[伯耆国]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 규에문[大屋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라는 자가 도해하여 어업하는 것을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다스리고 있을 때 봉서를 통해 허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도해한 적이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그 일은 잘 모릅니다. [...] 죽도(울릉도) 송도(독도) 그 외 양국(이나바, 호키)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안용복 일행을 일본으로 데리고 온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울릉도 영유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 또는 ‘죽도(울릉도) 일건’이라고 한다. 한일 양국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1695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도해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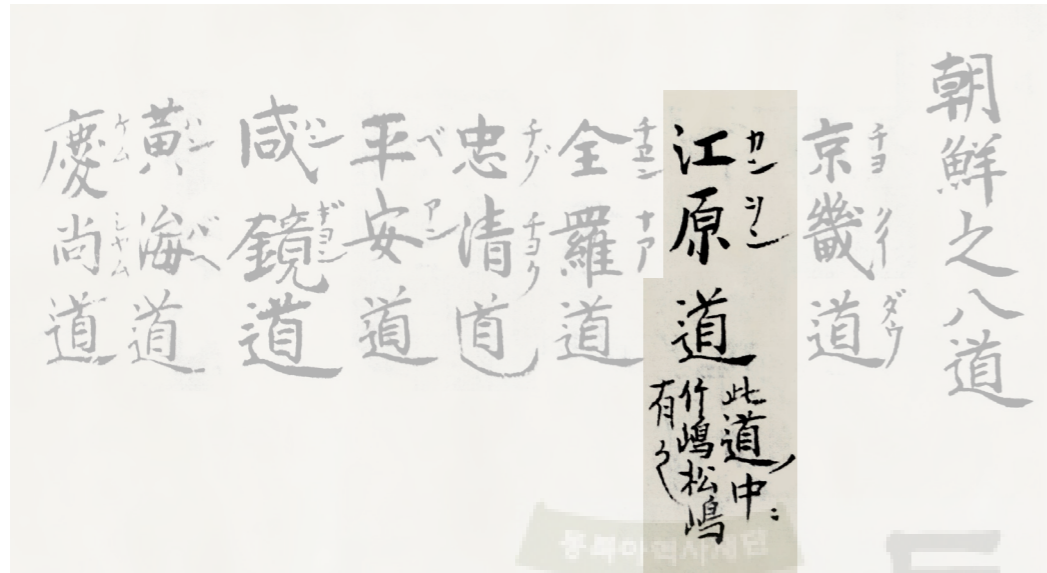
[원문]

[...]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를 다스리던 때 하쿠슈 요나고[米子]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오야 진키치[大屋甚吉]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정월 28일
쓰치야 사가미노카미
도다 야마시로노카미
아베 분고노카미
오쿠보 가가노카미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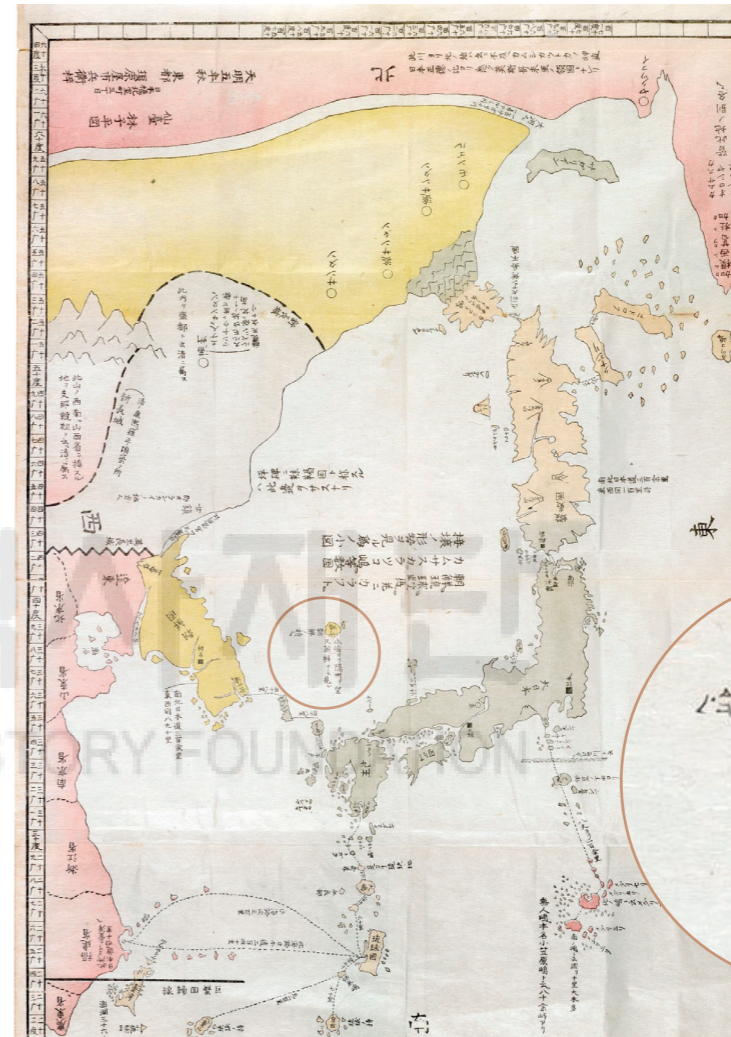
▲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

[원문]

강원도, 이 도(道) 가운데,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 1696)는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로,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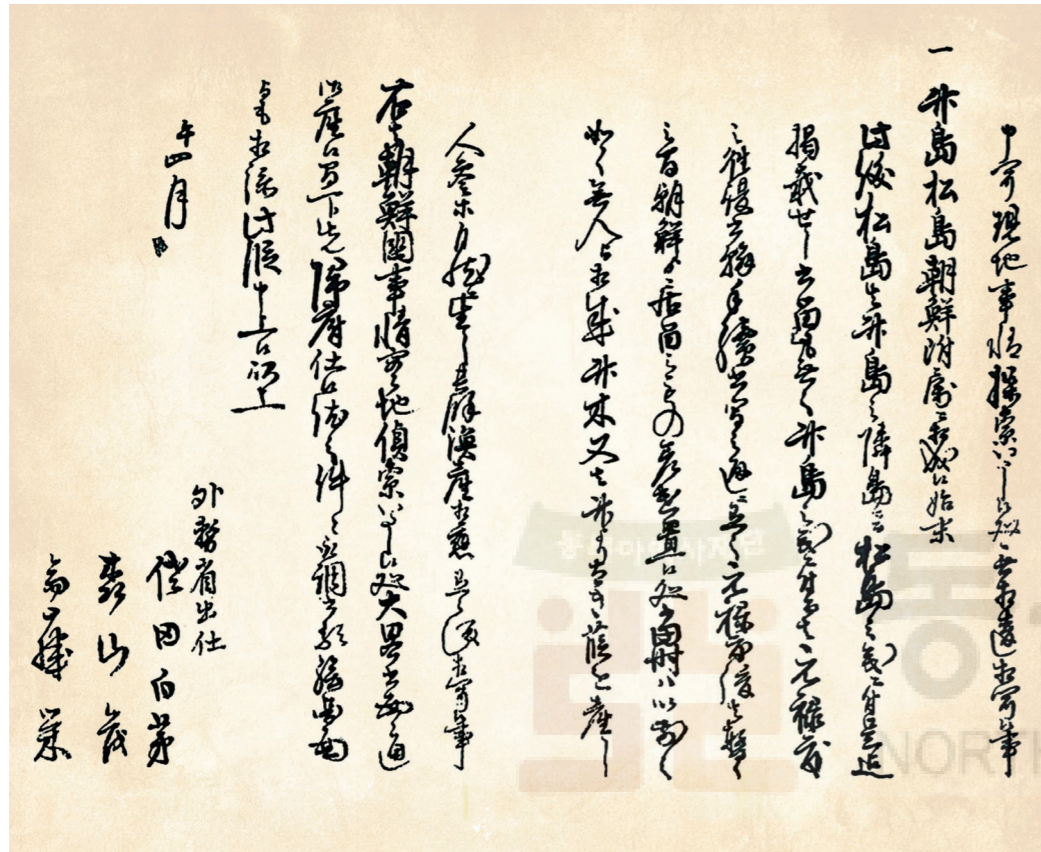
삼국접양지도



▲ 삼국접양지도(1785), 50.5×72.5cm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 첨부된 5장의 부도 가운데 하나이다. 지도에서 국가를 구분하기 위해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으로 채색을 달리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같은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또한 그 옆에 “조선의 소유다[朝鮮ノ持也]”라고 적어 이들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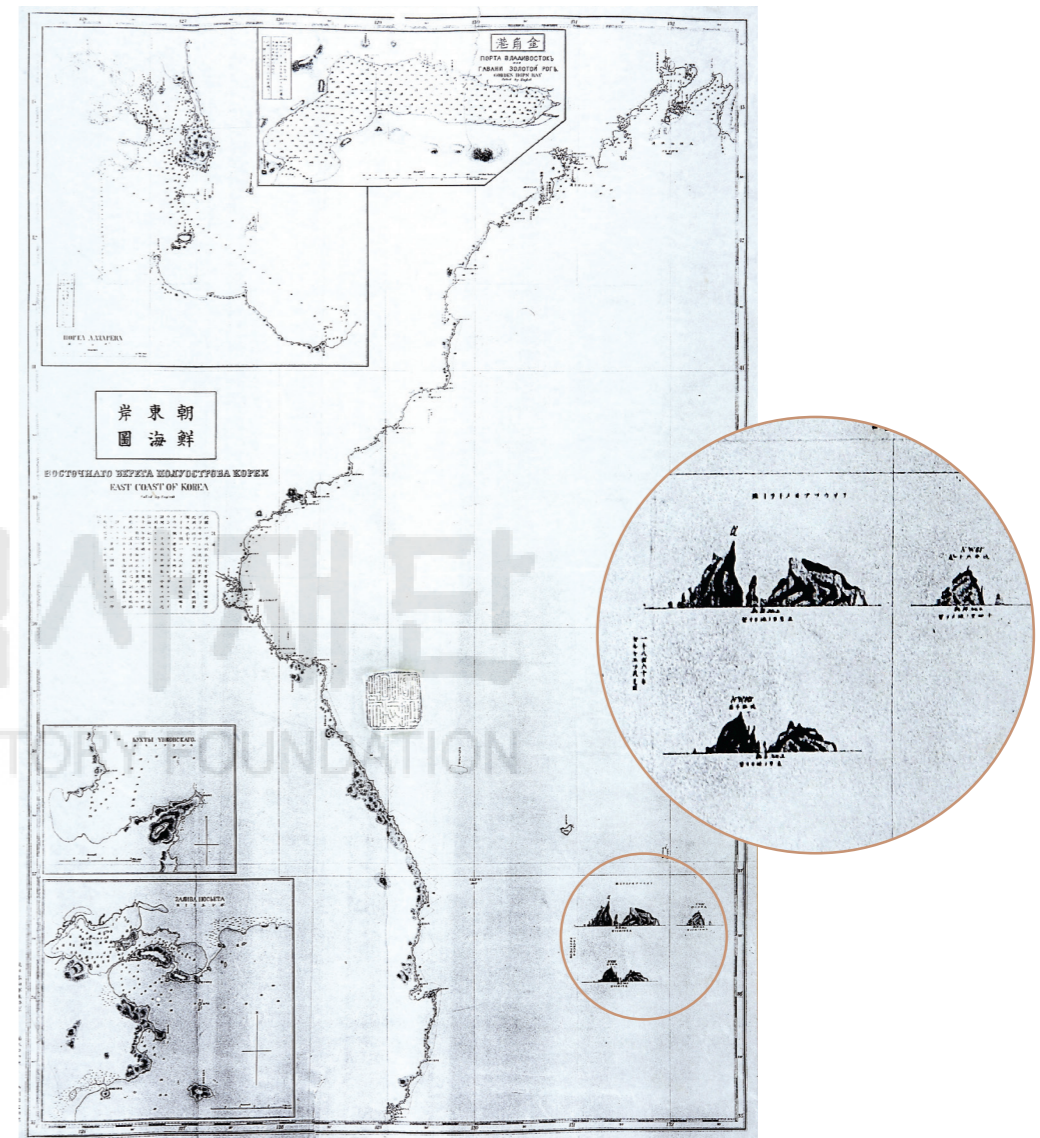
[원문]

죽도(竹島: 울릉도)·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나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 정찰한 바, 대략적인 내용은 서면에 있는 그대로이므로 우선 돌아가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69년에 외무성 관료 3명을 조선에 보내어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도록 지시했다. 이 외무성 관료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조선동해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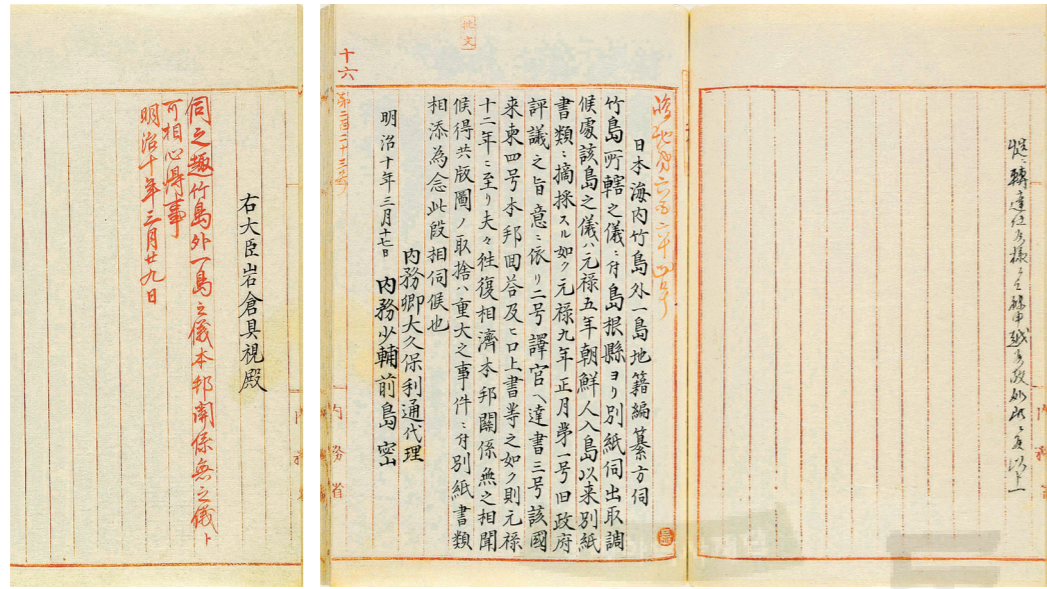


▲ 조선동해안도(1876), 63.5×98cm

러시아 해군 팔라다호의 장교들은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했으며, 그 성과로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 수로부는 1876년 「조선동해안도」를 번역해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울릉도 이외에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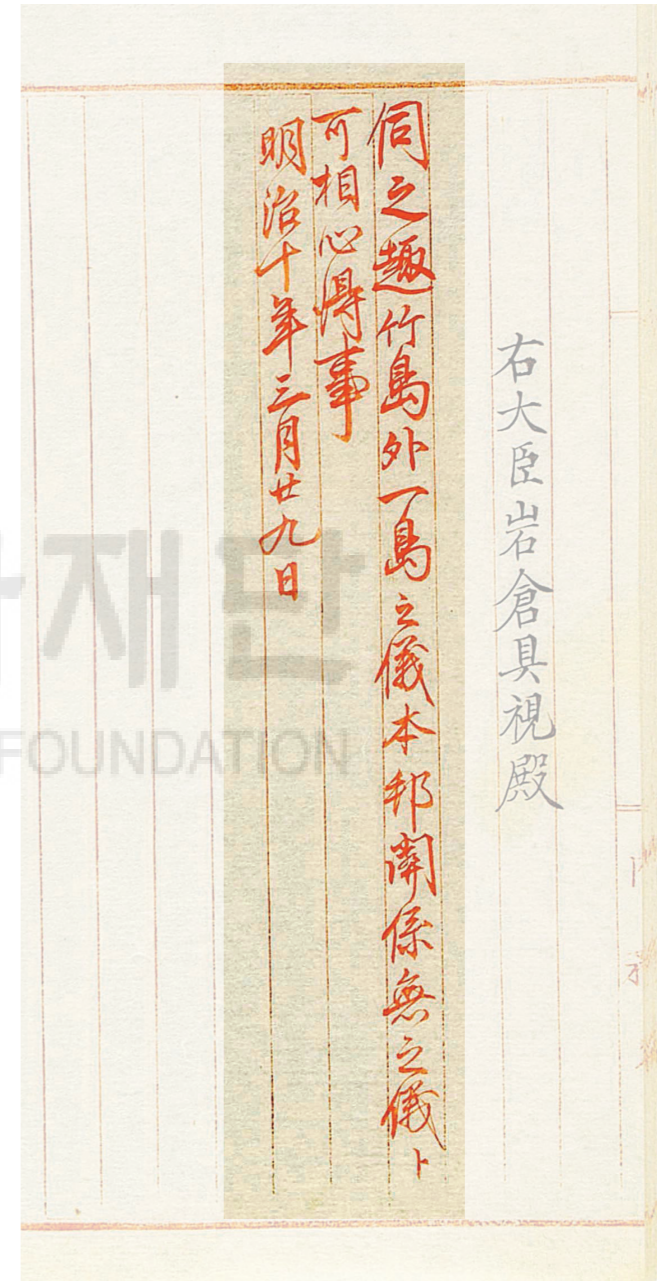
태정관 지령



▲ 태정관 지령(1877)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지령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관내의 지적(地籍)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일본의 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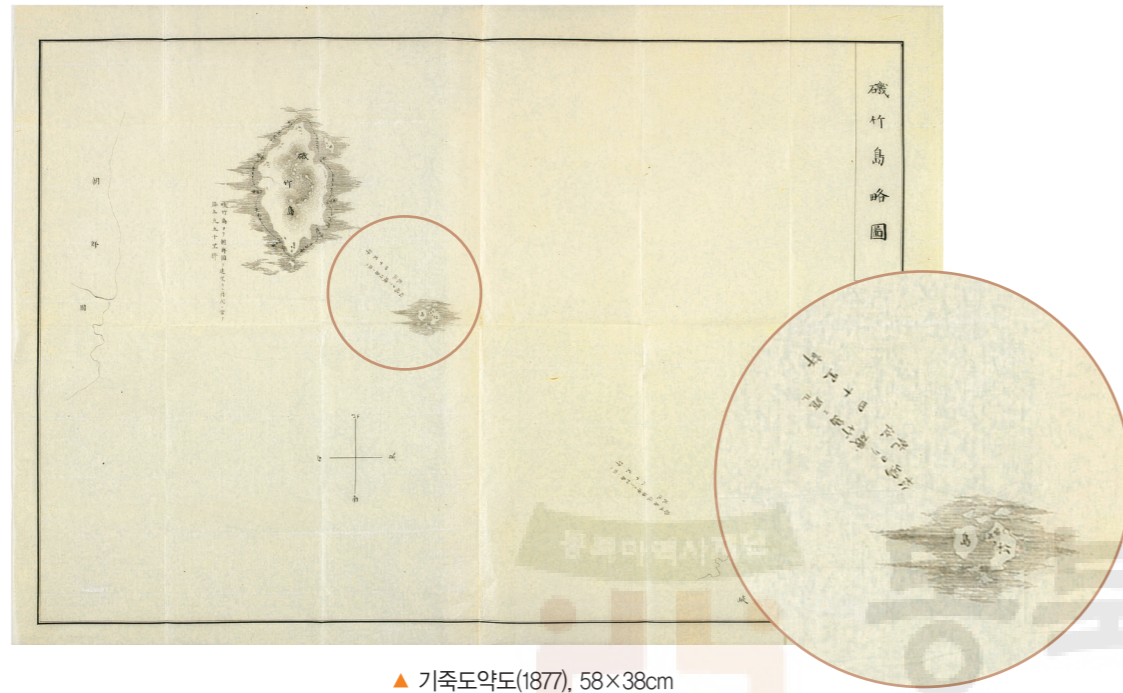
[원문]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1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메이지 10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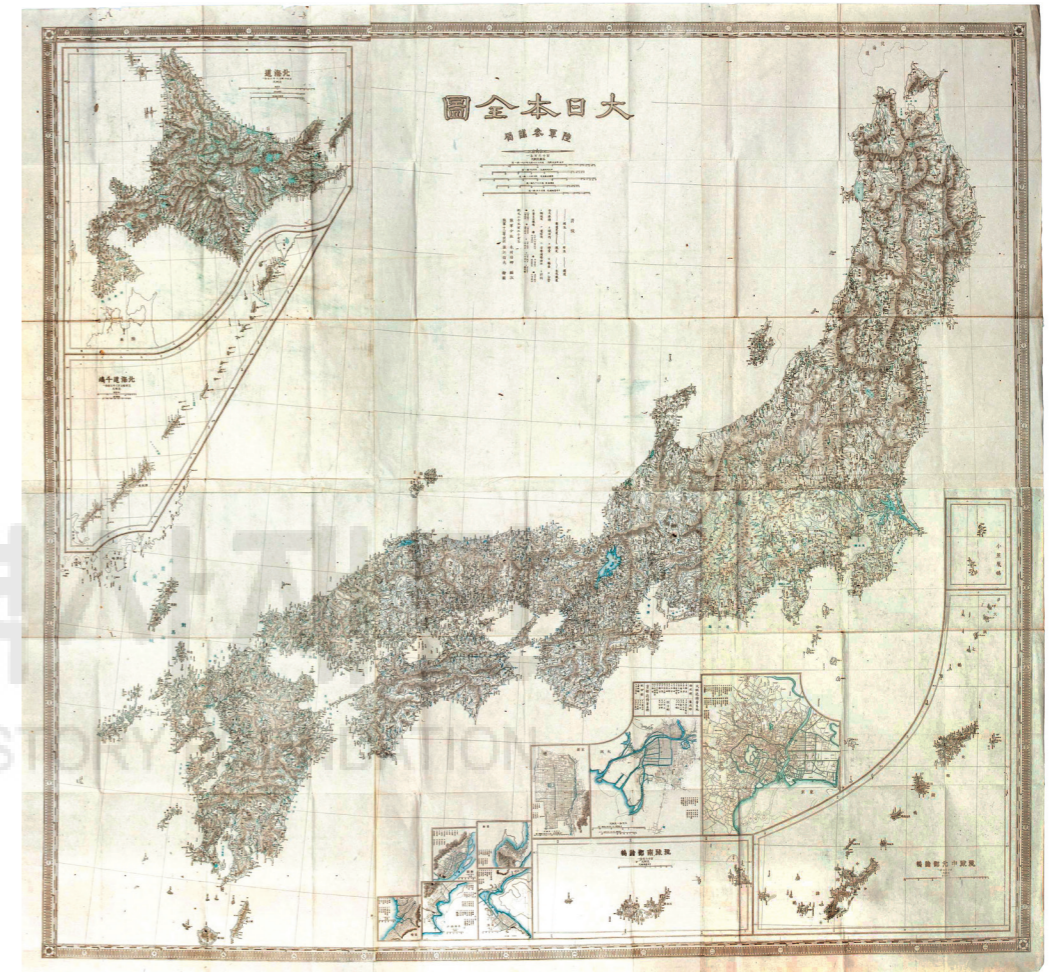
기죽도약도



▲ 기죽도약도(1877), 58×38cm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죽도(울릉도) 외 1도'를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고,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는 공식 문서로 답했다. 그런데 '죽도(울릉도) 외 1도'의 1도가 독도라는 것은 위 관련 공식 문서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당시 일본의 독도 명칭인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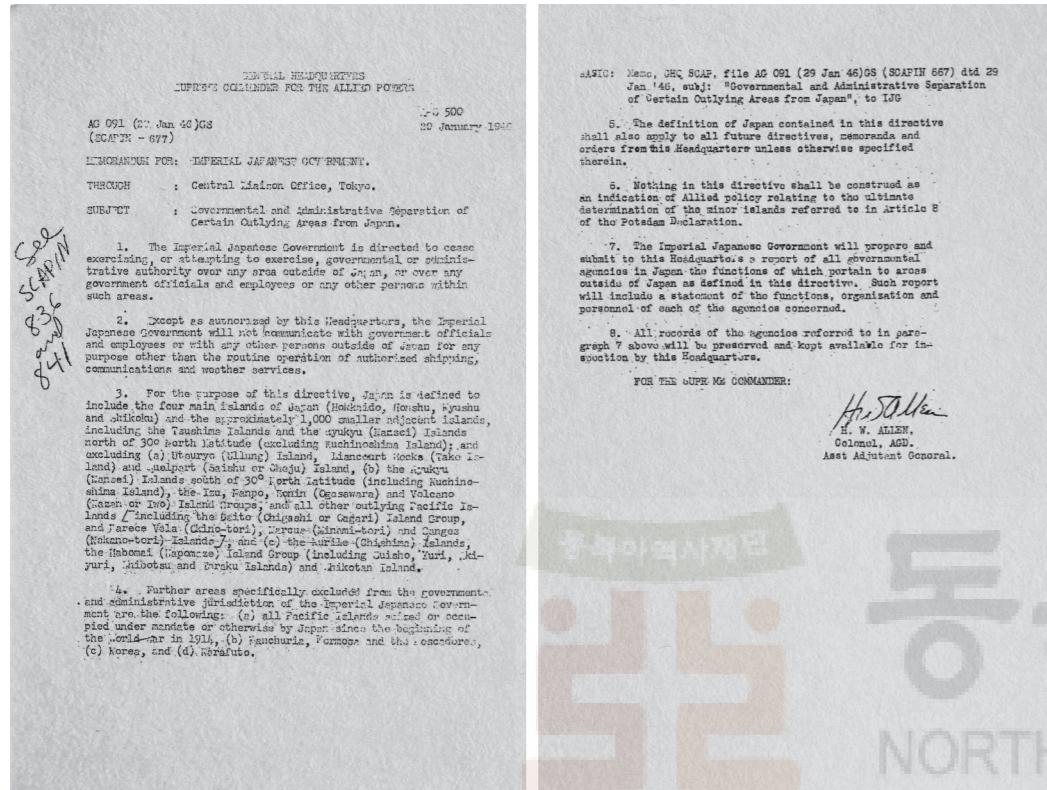
대일본전도



▲ 대일본전도(1877), 123×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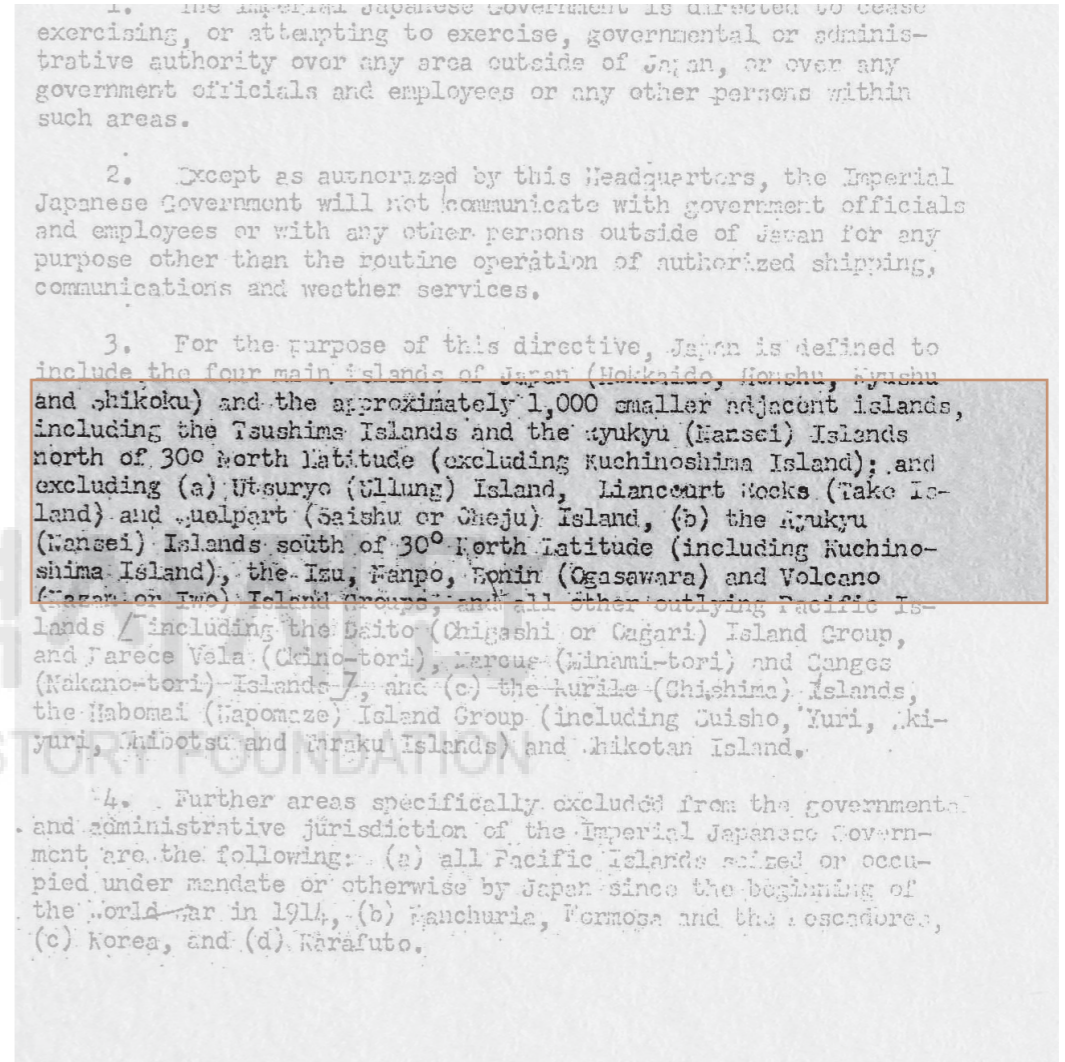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조선, 청국의 전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된 것이다. 육군참모국이 일본의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 지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계속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는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 18.5×24cm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라는 제목의 각서를 일본 정부에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 각서의 규정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 통치한 기간 내내 적용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문]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㊸ 울릉도·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조선왕국전도



▲ 조선왕국전도(1737), 44×60cm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한국 지도이다.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鬱陵島)를 Fan-ling-tao, 독도[于山島]를 Tchian-chan-tao로 표기하였다. 독도가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우(于)를 천(千)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내륙 가까이 표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동해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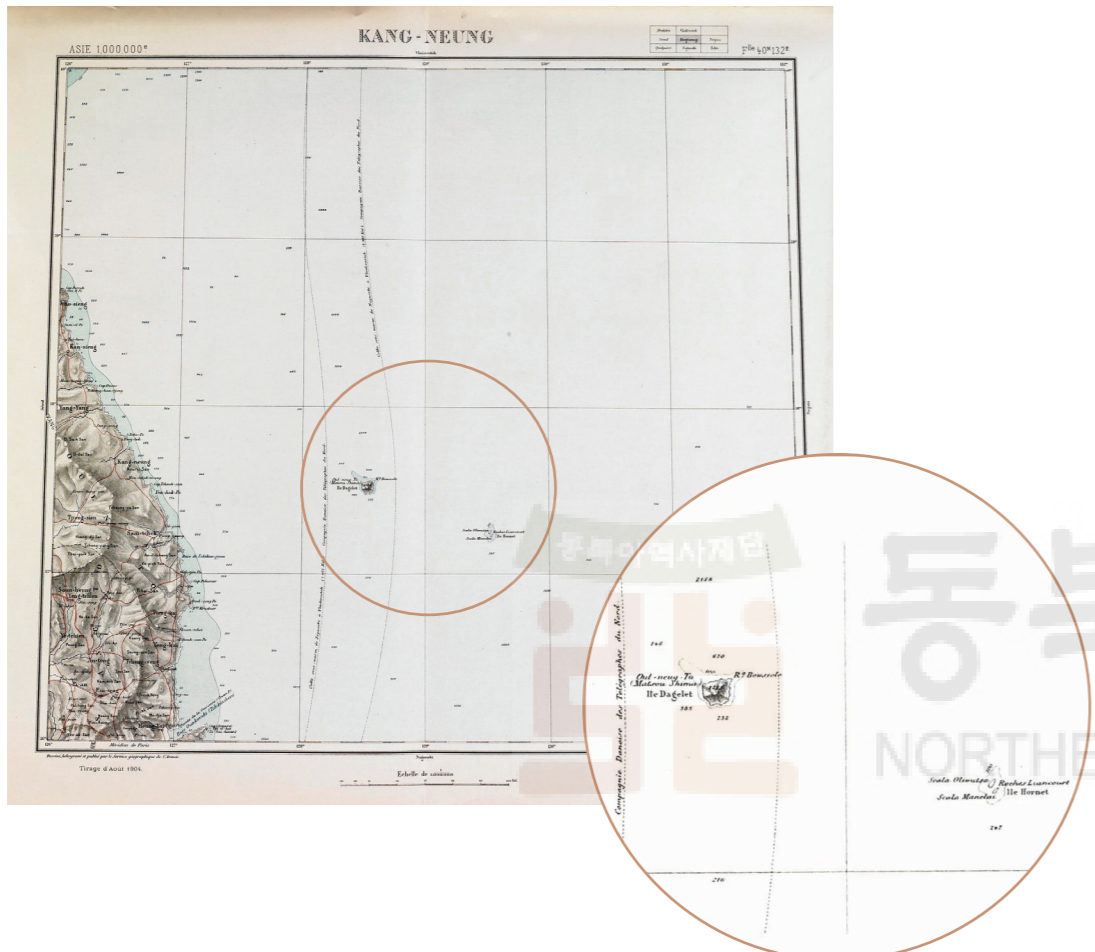
▲ 조선동해안도(1857), 63×94cm

러시아 해군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그 성과로서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울릉도 이외에 최초로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러시아어로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로 표기하였다. 이는 러시아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
 仇水弓勿山洞驛三興富興古名府德神古...
 竹津山竹津山北准竹竹邊串北准山...
 東海中方百里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
 此獸國威來可以計服乃多智證王十二...
 難以威來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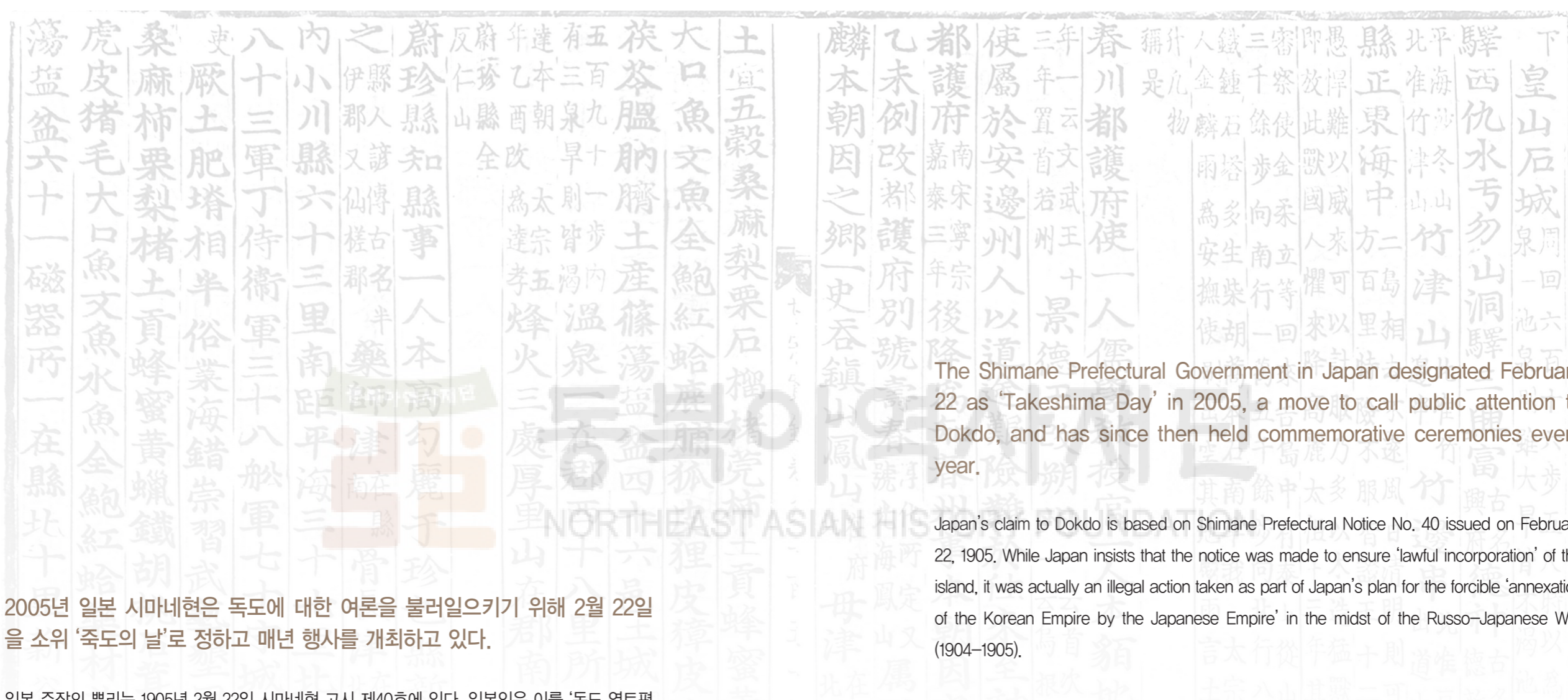
강릉



▲ 강릉(1904), 68.9×54.6cm

현재 프랑스 국립지리원(IGN)의 전신인 군지도제작소가 1898년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기존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릉 이외에 서울, 제주, 블라디보스토크 지도도 함께 발간했다. 독도 지명은 당시 서양(러시아, 프랑스, 영국)에서 사용된 서도[Scala Olioutsa]와 동도[Scala Manelai], 리양쿠르 록스[Rockes Liancourt], 호넷[Ile Hornet] 등을 모두 표기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뿌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있다. 일본인은 이를 '독도 영토 편입'이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편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제국 침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 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10개 국어로 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독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자국 정부가 작성한 『조선국 교제시말내담서』(1870년)나 「태정관 지령」(1877년)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한 명백한 증거들을 감추고 근거 없는 주장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in Japan designated February 22 as 'Takeshima Day' in 2005, a move to call public attention to Dokdo, and has since then held commemorative ceremonies ever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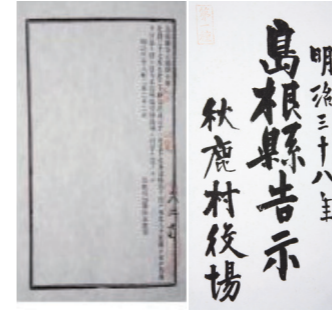
Japan's claim to Dokdo is based on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issued on February 22, 1905. While Japan insists that the notice was made to ensure 'lawful incorporation' of the island, it was actually an illegal action taken as part of Japan's plan for the forcible 'annexation of the Korean Empire by the Japanese Empire' in the midst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Nevertheless,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stressed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tudents about Dokdo in 2008 by ensuring Japan's claim to Dokdo was includ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Guidelines devis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also advocating this unjust claim by publishing promotional brochures printed in ten different languages. However, Japan is attempting to hide obvious historical evidence demonstrating that Dokdo is not a Japanese island, including the Chosenkoku Kosai-Shimatsu Naitansho (Confidential Inquiry into the Particulars of Korea's Relations with Japan, 1870) and Daijokan's Order (1877)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and repeating its groundless claims over and over.

일본의 독도 침탈부터 소위 '죽도의 날'까지

1904년

- 2월 8일** 일본군은 2월 10일 선전포고에 앞서 러시아 군함을 기습 격침시키고 우리나라에 불법 상륙하여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2월 23일) 하는 등 우리나라를 단계적으로 전쟁기지화
- 9월 24일**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호가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조사 후 망루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 9월 29일**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 제출



▲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일본 오키섬의 독도 관련 선전 입간판 '독도는 오늘도 어제도 오키의 섬'이라는 뜻



▲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개최

1905년

- 1월 10일** 내상 요시가와 아키마사[芳川顯正]가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 요청
-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
-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은 내무성을 통해 각의의 결정을 통고받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 편입을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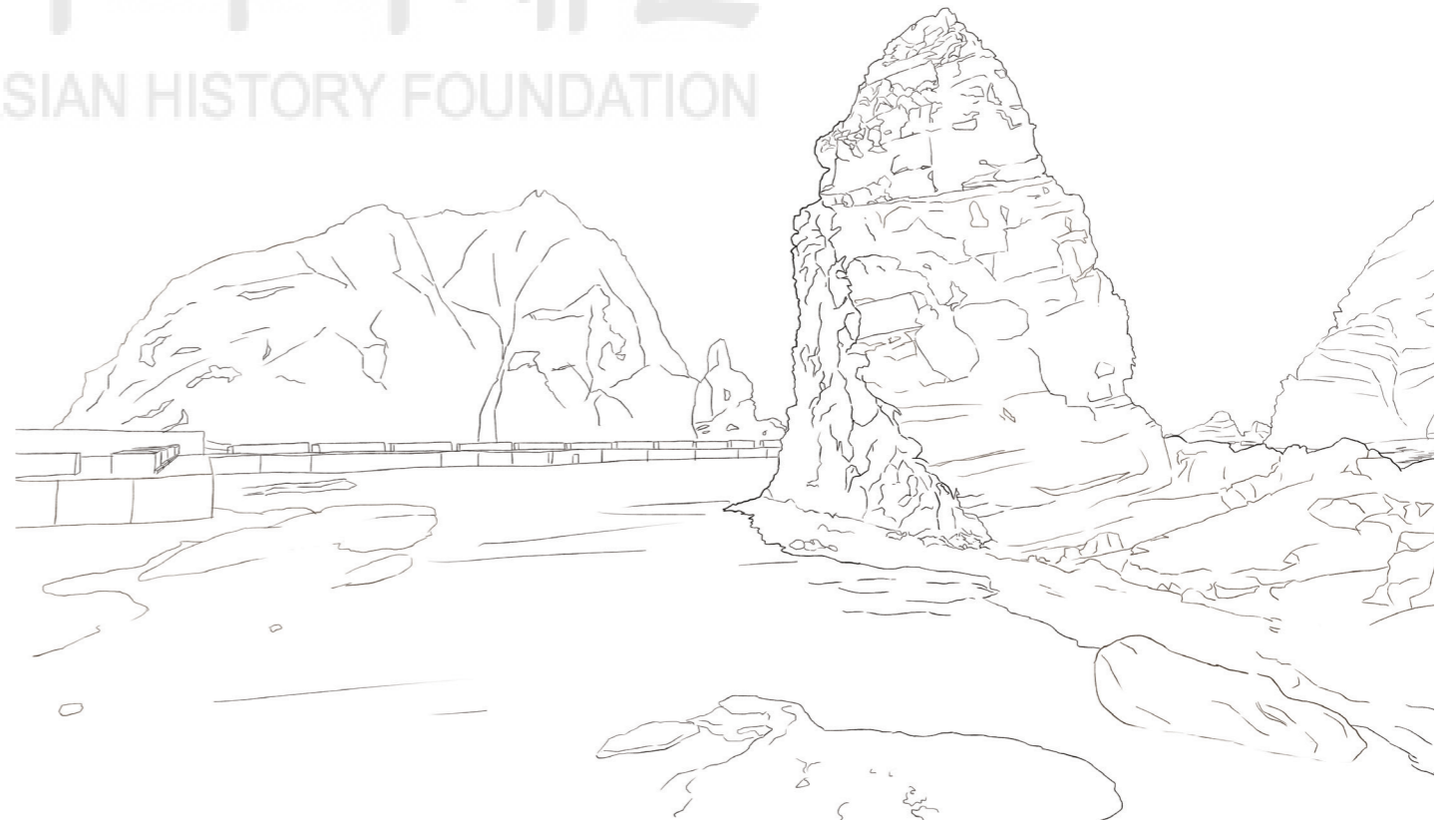
2005년

- 3월 16일** 1905년 시마네현 독도 영토편입 조치 이후 100년이 되는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

2006년 이후

- 2월 22일**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죽도의 날' 행사 개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독도 침탈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각의 결정과 2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자국의 땅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보다 앞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가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국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대한제국은 1906년 3월 일본의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한 뒤에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다음날 상부기관인 강원도 관찰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중앙부처로도 전달되었다. 보고를 받은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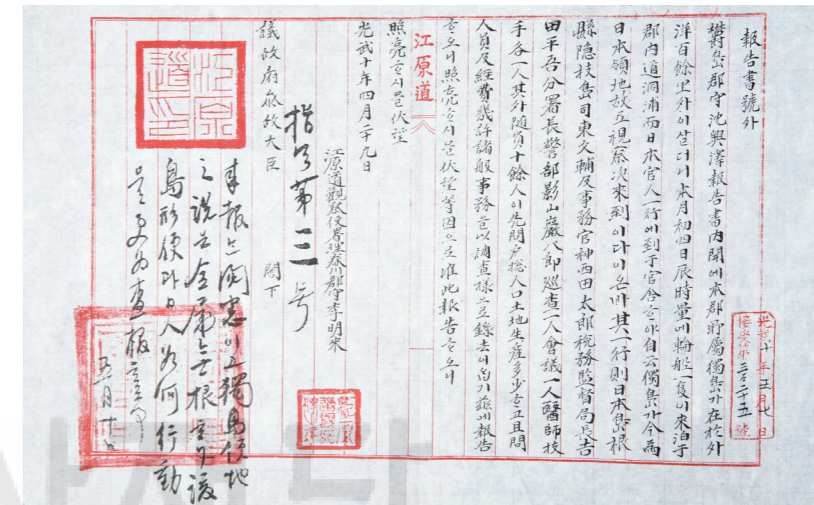


▲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한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과 당시 울릉도 심흥택 군수

[울릉도 군청 앞]

지붕을 나무판자로 인 집이 군청이며, 아이들 4명이 들고 있는 것이 태극기이고, 그 오른쪽에 관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심흥택 군수이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시마네현 진자이[神西] 사무관, 그 오른쪽이 전임 울릉도 군수이다.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



▲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1906), 28×18.5cm

[원문]

보고서 호외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듣기로는 본 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에 와서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 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고[吉田平吾], (경찰)분서장 가게야마 이와치로[影山巖八郎]와 순사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 외 수행인원 10여 명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다음으로 인원과 경비 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피주시기를 엿드려 바라며 이에 보고하오니 살피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참정대신 지령문 3호

의정부 참정대신 합하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대한매일신보



▲ 대한매일신보(1906. 5. 1), 25.2×34.5cm

[원문]

무변불유(無變不有)

울도군수 심흥택 씨가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에 와서 본군에 소재하는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고 하며 땅의 크기와 호구·경지수를 기록하여 갔다”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일본 관원이) 유람차와서 땅의 크기와 호구를 기록해 가는 것이 혹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 속지라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지금 보고받은 바가 아연실색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 편집자 주 : 울도군은 1906년 당시 울릉도의 행정 명칭임.

황성신문



▲ 황성신문(1906. 5. 9), 27×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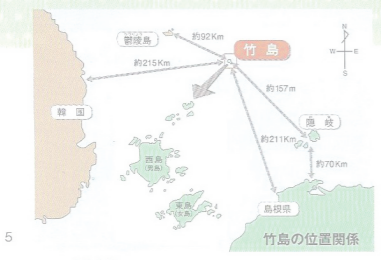
[원문]

울출보고내부(鬱出報告內部)

울도군수 심흥택 씨가 내부(內部)에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1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번 달 4일에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로 와서 말하길 독도가 지금은 일본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였는데, 그 일행인즉,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및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와 세무감독 국장 요시다 헤고 분서장, 경부 가게 야마 이와치치로와 순사 1명, 회의 1명, 의사 및 기수 각 1명 그 외 수행원 10여 명이었는데 가호수, 총인구, 토지 생산량과 인원 및 소요경비와 제반 사무에 대해 조사·기록하여 갔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독도 관련 역사왜곡 일본 중학교 교과서

자유사[自由社] 교과서 (2011년 3월 30일 검정 통과)



5 竹島の位置関係

5 竹島 韓国が占領中

江戸時代からわが国が領有 竹島は竹が茂っていた島で、人は住めないが周辺は海流の影響で豊富な漁場となっている。江戸時代には鳥取藩の人が幕府の許可を得て漁業を行っていた。1905(明治38)年、国際法に従ってわが国領とし島根県に編入、以降実効支配を行ってきた。戦後は日本領土を確定した国際法である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日本領土と確認されている。

10 実力で占拠 ところが対日講和条約が発効する直前に韓国李承晩政権は、一方的に日本海に「李承晩ライン」を設定し、竹島を自国領としてとりこみ、違反したとする日本漁船に銃撃、拿捕、抑留などを実施した。1954年には、沿岸警備隊を派遣し、竹島を実力で占拠した。現在も、警備隊員を常駐させ、実力支配を強化している。


15 韓国政府の見解 韓国が竹島の領有を主張する理由は、①竹島は韓国名獨島で、固有の領土である、②日本は力で日本領に編入した、③GHQの指令で韓国領土とされていた、などとするものである。

20 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 ①の主張に対しわが国は、獨島と竹島はちがう島である

25 尖閣諸島 中国が領有権を主張

尖閣諸島は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の周辺海域に1970年代はじめ有望な油田が確認された。すると、中国はこの尖閣諸島を自国の領土であると主張しはじめた。近年、尖閣周辺海域では、中国漁船がしばしば違法操業を行っている。

30 また領海をめぐる、2004年ごろから日中両国の中間線上にガス油田採掘施設を設置し、採掘しはじめた。油田はわが国のEEZの海底につながっており、採掘は資源の横取りではないかと、わが国は改善を求めている。



35 東シナ海ガス田 唐字は日本名、赤字は中国名

中国 九州 日中中間線 平湖 桶(断橋) 井井 檉(天外天) 白樟(春晚) 沖繩 台湾

白色は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 黄色は日本の領海

149

▲ 자유사 출판사의 교과서 p. 149

〈번역〉

죽도(竹島) 한국이 점령 중

에도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영유 죽도(竹島)는 대나무가 무성했던 섬으로 사람은 살 수 없지만 주변은 해류의 영향으로 풍부한 어장이다. 에도시대에는 돛토리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였다. 1905(명치38)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로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 이후 실효지배를 해왔다. 전후에는 일본 영토를 확정된 국제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라고 확인되었다.

실력으로 점거 그러나 대일강화조약이 발효하기 직전에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일방적으로 일본해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죽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일본 어선에 총격, 나포, 억류 등을 실시하였다. 1954년에는 연안경비대를 파견하여 죽도를 실력으로 점거하였다. 현재에도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실력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견해 한국이 죽도의 영유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① 죽도는 한국명 독도로, 고유의 영토이다, ② 일본은 힘으로 일본령에 편입했다, ③ GHQ의 지령으로 한국영토로 간주되고 있었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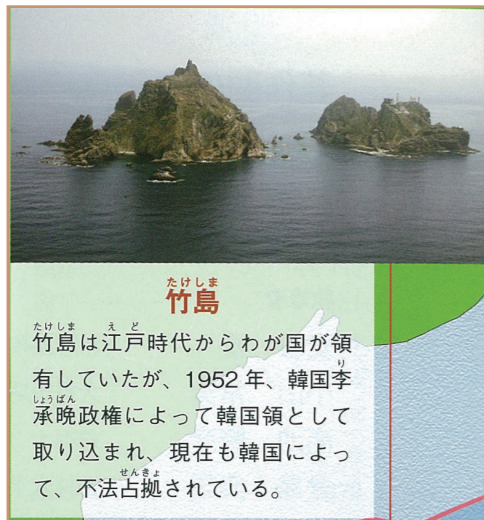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①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독도와 죽도가 다른 섬이라는 것은 역사문헌에서도 명백하고, 다른 2개의 주장은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 편집자 주 : '죽도'는 독도의 일본 명칭, '일본해'는 동해의 일본 명칭, '이승만 라인'은 평화선을 말함.

자유사[自由社] 교과서



▲ 자유사 출판사의 교과서 뒷 표지 속면 화보



<번역>

죽도

죽도는 에도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영유하고 있었는데 1952년 한국의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한국령으로 편입되어 현재도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 (2011년 3월 30일 검정 통과)



▲ 이쿠호샤 교과서의 앞표지 속면 그림



<번역>

일본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죽도, 시마네현에서는 1905년 2월 22일에 현지사가 소속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이날을 죽도의 날로 정하였다.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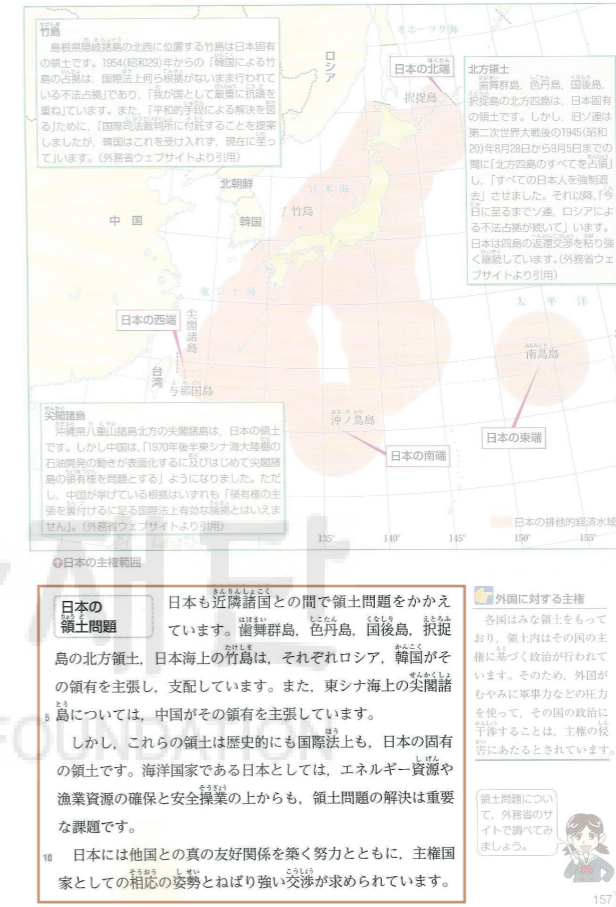
▲ 이쿠호샤 교과서 p. 157

〈번역〉

죽도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1954년(소화 29)부터 “한국에 의한 죽도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고, 우리나라로서 엄중히 항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인용)

동북아역사
NORTHEAST ASIAN HISTORY FOR ALL



▲ 이쿠호샤 교과서 p. 157

〈번역〉

일본의 영토문제

일본도 인접국가들과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북방영토, 일본해상의 죽도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동중국해상의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입니다. 해양 국가인 일본으로서 에너지자원 및 어업자원의 확보와 안전조업 등의 차원에서도 영토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1

▶ 일본의 주장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세키스이 [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일본,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관찬(官撰)문서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근대 일본 외무성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이 1876년 발행한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와 같은 관찬(官撰)지도들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토대로 “[...] 품의한 취지의 竹島 [울릉도] 외 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2

▶ 일본의 주장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섬이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官撰)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지도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 일본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 [江戸] 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大谷], 무라카와 [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일본 정부 문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4

▶ 일본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독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별도의 도해 금지 불필요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 [大谷家] 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 근변의 송도 [竹島近邊松嶋]’ (1659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竹嶋內松嶋]’ (1660년)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 일본의 주장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安龍福)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안용복 진술, 한국과 일본 문헌에 근거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속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돛토리번(鳥取藩)에 귀속된 시기를 문의하는 일본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돛토리번은 “돛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 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나고 주민의 경우 그 이전에는 울릉도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6

▶ 일본의 주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은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일본, 러일전쟁 중 불법으로 영토 편입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론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사실을 전해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7

▶ 일본의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 1. 29)를 적용하였다.

※ 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 ·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8

▶ 일본의 주장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독도가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나타낸다. 미일행정협정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미 공군 폭격훈련구역 지정, 한국 항의로 즉시 해제

독도는 당시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 [山本利壽]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 [石原幹市郎] 외무차관이 응답한 내용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 주둔군의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9

▶ 일본의 주장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한국,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여 명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10

▶ 일본의 주장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불필요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와 함께 한
사람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s island, Dokdo, is an island where every inch of soil is rich with patriotic fighters' sweat and blood.

Among these historical figures, the Silla General Isabu and Joseon fisherman An, Yong-bok are especially noteworthy, as the former was the first to incorporate Dokdo into Korean history, and the latter led a heroic fight against the intrusion of Japanese traders on the islands. In the early 20th century, a county head of Ulleung-gun, Sim, Heung-taek, revealed imperial Japan's secret intrusion of Dokdo as part of Japan's plan to annex Korea by force. The Dokdo Volunteer Garrison led by Commander Hong, Sun-chil risked their lives to protect Dokdo from Japan's provocations. Their patriotic spirit and strong will to protect Dokdo have passed through generations.

A memorial monument erected on the summit of Dongdo(East Island) of Dokdo commemorates the heroic spirit of the Dokdo guards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protect Dokdo, including Heo, Hak-do in 1954. The devotion and patriotism of these defenders will always be remembered and honored throughout Korean history.

우리와 함께 한 우리 땅 독도, 우리 민족의 땀과 피가 서려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등장시킨 이사부, 일본의 침탈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 낸 안용복의 땀과 눈물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자행한 은밀한 독도 침탈을 만천하에 드러낸 심흥택 군수, 일본의 독도 도발로부터 삶의 터전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도의용수비대와 홍순철 대장,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 수호 의지는 대를 이어 전해진다.

1954년 허학도 대원을 비롯하여 독도를 지키다 숨져간 독도경비대원들의 얼이 독도의 동도 정상에 순국비가 되어 서 있다. 이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또 다른 이들의 삶이 되고 민족의 역사가 되어 영원히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



울릉도 · 독도와 관련 있는 역사 속 인물

이사부

이사부는 성이 김 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일명 태종(荅宗)이라고도 한다.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는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 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의 복속을 계획하고,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움에 항복해 신라에 복속되도록 하였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소국이였다. 이사부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로서 6세기 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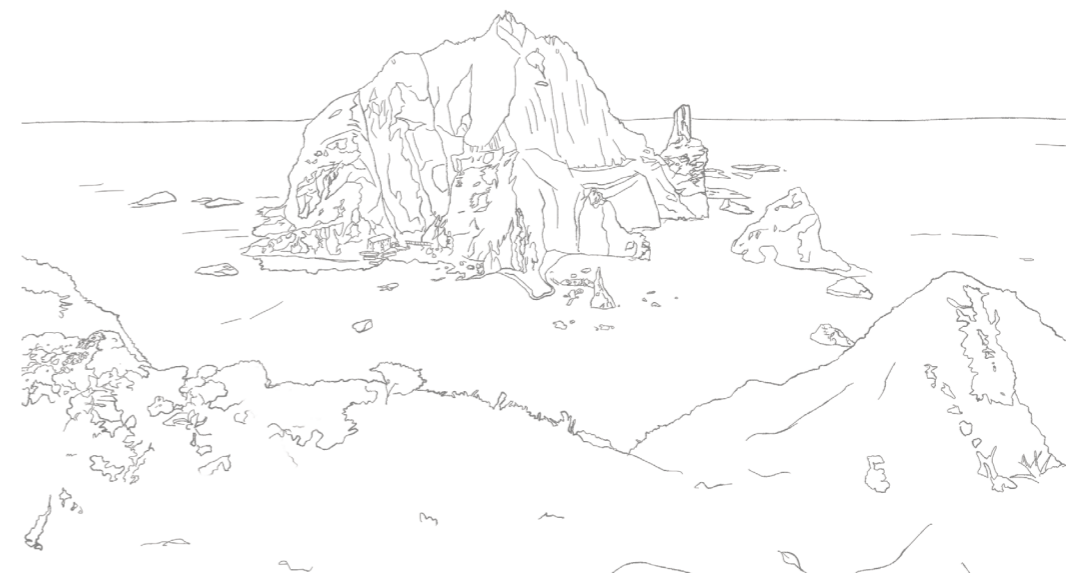
심홍택

1855년에 태어난 심홍택은 1903년부터 약 3년여간 울릉군수로 재직했다. 심홍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울릉도로 찾아온 시마 네현 관리들에게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심홍택 군수의 보고를 통해서 1905년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부산 동래 사람이다. 그는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문책하면서 담판을 벌였다.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이 더 이상 울릉도 지역에서 어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안용복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도를 사수한 독도의용수비대와 경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 어민들의 어업제한선인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시기를 틈타 독도 침탈을 시도했다. 일본인들은 독도에 상륙하여 우리 어민들을 쫓아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홍순철 대장을 비롯한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독도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독도를 지켰다. 그들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1966년과 1996년에 각각 근무공로훈장 및 방위포장, 보국훈장을 추서하고 이들의 독도사랑과 애국심을 기렸다. 또한 2008년에는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독도에 경찰을 파견하여 독도를 경비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의 육지와 바다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 포대경으로 감시 중인 독도의용수비대



▲ 독도 경비초사 및 표식 제막기념



▲ 훈·포장 수여식 후 독도의용수비대



▲ 경계근무 중인 독도경비대



▲ 태극기를 게양하는 독도경비대

독도 주민들의 삶과 자취

독도에 우리 어민들이 상주하게 된 것은 1965년 울릉도 주민 최종덕 씨가 독도에 입도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울릉도의 어민이나 해녀들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계절을 이용하여 독도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고기잡이를 하였다. 최종덕 씨는 198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1987년 타계할 때까지 독도의 서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최종덕 씨의 뒤를 이어, 그의 가족인 최경숙, 조준기 씨가 독도에서 생활하였다.



▲ 독도의 최초 주민 최종덕



▲ 독도의 제주해녀



현재 독도 주민과 시설

1991년에는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현재 독도리 안용복길 3번지인 주민숙소에서 생활한다. 김성도 씨는 2007년도에 독도리 이장에 취임하여 독도에서 실시된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독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 경찰, 공무원 등 약 40명이 생활하고 있다.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 등 5명이며, 독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독도를 본적지로 하고 있는 사람도 2,465명(2011년 6월 30일 현재)에 이른다. 독도에는 유인 등대, 주민숙소,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영토표석 등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각종 시설물도 있다.



▲ 독도호



▲ 독도 주민숙소



▲ 김성도, 김신열 부부



▲ 주민숙소 현판



▲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 한국령 표시와 등대



▲ 독도 영토표석



▲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석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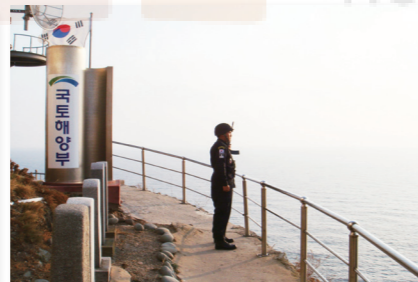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와 독도의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원들도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동대 정상 부분에 있는 독도경비대 숙소와 유인 등대에서 생활한다. 독도경비대원은 경찰관(3명)과 전경(27명)을 합쳐 약 30명으로, 2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경비대 숙소 옆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 등대가 있다. 등대에는 등대원 3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소속 등대원들이 1개월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 관광이 이루어지는 계절(매년 3월~11월)이면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2명)들이 독도에서 거주하면서 독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돕는다.



▲ 독도 해양경찰



▲ 독도경비대



▲ 독도 등대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활동

독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도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시행, 독도의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조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도와 관련된 민간단체들도 여럿 있다.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에서는 이들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독도수호국제연대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독도지킴이 거점학교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학생, 시민단체가 펼친 독도지킴이 활동



▲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



▲ 대학생 독도아카데미(독도탐방)



▲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



▲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독도 탐방 캠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김장훈·반크 독도 페스티벌



▲ 독도시민단체 연합행사



▲ 영토NGO국제포럼



기관·단체의 독도지킴이 활동



▲ 해외 지도제작자 초청 회의



▲ 한·미 지리교사 회의



▲ 국제학술회의(독도 방문)



▲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사이트 오픈



▲ 동해 명칭 국제세미나



▲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 KBS 실시간 독도 영상모니터 제막식

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爲
仇水亏勿山洞驛三興富興古名皆不渴池
竹津山竹津山北准竹竹邊串北准山巨
泉海中方百里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
此獸國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
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
此獸國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



동북아역사재단
영원한 우리 땅
독도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ot only is Dokdo a historical island of Korea which has been always with our nation, but also it is a rich repository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future.

Warm-and cold-water currents intersect in the waters around Dokdo creating rich fishing grounds. The waters also contain large deposits of valuable marine resources, including gas hydrates. Moreover, Dokdo is highly regarded as a strategic area in terms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military logistics.

Today, over 100,000 local and foreign tourists visit Dokdo every year. The island is particularly busy in April not just because of the tourists but also due to the thousands of black-tailed gulls hatching on the island. The island also offers comfortable shelters for residents, police coast guard officers, lighthouse keepers and civil servants dispatched from the Ulleung-gun Administration. The history of the island reminds the Korean people of the importance of holding steadfast to their strong ideas about Dokdo being Korean territory. We should recognize Korean sovereignty of Dokdo and keep a clear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island to stand firm against Japan's unjust territorial claim. Defending and protecting Dokdo from outside forces is a critical duty and mission for us all.

독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역사의 땅이자 미래의 보고(寶庫)이다.

독도 주변의 어장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고, 그 인접 수역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독도는 동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로상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 요충지로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최근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4월이 되면 수천, 수만 마리의 갯이갈매기들이 독도를 찾는 이들을 반긴다. 오늘도 주민, 경찰, 등대원, 울릉군청 직원들은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침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사관과 영토관을 갖고 독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임무이자 사명이다.



독도의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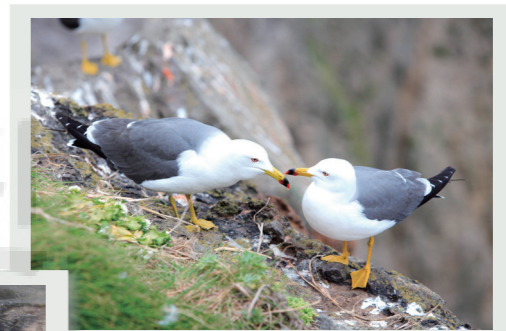
독도에는 바다제비, 습새, 괭이갈매기 등 해조류(海鳥類) 대집단이 번식하고 있고, 철새들의 중간 휴식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1982년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다.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도서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동물

독도에는 야생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는다. 다만 독도경비대에 삽살개가 살고 있다. 독도의 야생동물로는 크게 조류와 곤충류 두 부류가 있다. 독도에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를 비롯하여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독도에 살고 있는 곤충으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파리, 나비, 딱정벌레 등이 있는데, 그중 딱정벌레목에 속한 곤충이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 괭이갈매기



괭이갈매기



물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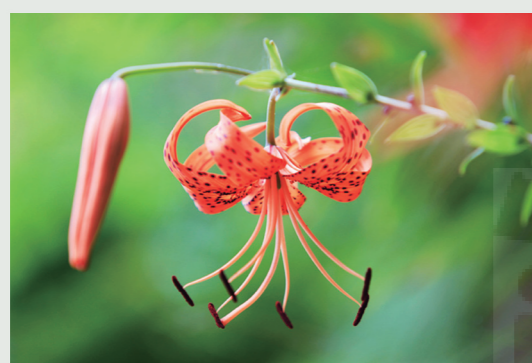
삽살개

▲ 독도의 동물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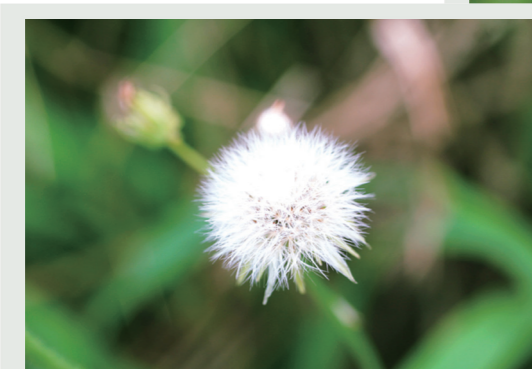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지질 때문에 토양층이 발달하지 않았다. 또 경사가 급한 까닭에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독도의 식물은 크게 초본류와 목본류로 나뉜다. 초본류로는 민들레, 꿩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바랭이, 쑥, 쇠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있고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있다. 현재까지 독도에 식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이 된다.



나리



사데풀



방가지똥



섬장대



갯괴불주머니



섬기린초



솔괘랑이



해국

▲ 독도의 야생화



해양생물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큰 무리를 지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회유성 어족이 많이 몰려든다.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다. 특히 오징어는 독도 연안과 대화퇴어장(독도 인근 해역의 어류서식지)의 어획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저 암초에는 소라, 전복, 홍합 등의 패류가 있고, 해조류(海藻類)로는 미역, 다시마, 김, 우뚝가사리, 툇 등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울릉도 및 독도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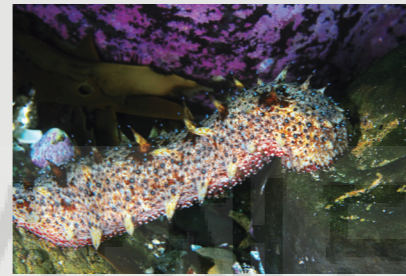
▲ 가제바위 주변 해초 군락과 치어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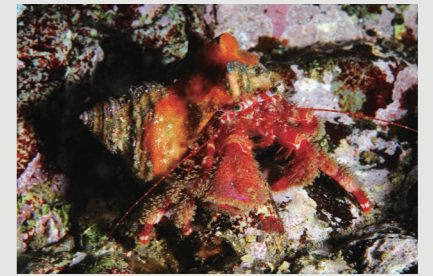
예쁜이갯민숭이



가죽해면말미잘



돌기해삼



붉은 눈자극 참깡게



주홍토끼고등



청황베도라치



살오징어



부채뿔산호 군락

▲ 독도의 해양생물



천혜의 관광자원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로 가서 독도 운항 여객선을 타야 한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독도 체류 시간은 대개 20~30분 정도로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에 제한되어 있다. 4~6월 팽이갈매기 산란기가 되면, 수많은 팽이갈매기로 독도는 장관을 이룬다. 독도에는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한반도바위 등 기묘묘한 바위들이 있으며, 갖가지 단층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지질학의 보고와도 같다.

<참고>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공개가 제한되었으나, 2005년 3월에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입도허가제는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2009년 6월 기존의 1일 입도 제한 인원(1,880명)도 폐지하였다.



▲ 천장굴과 서도



▲ 독도 정상에서 본 선착장과 독도 관광객



▲ 촛대바위



해양심층수와 지하자원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여 수온이 항상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하고 유기오염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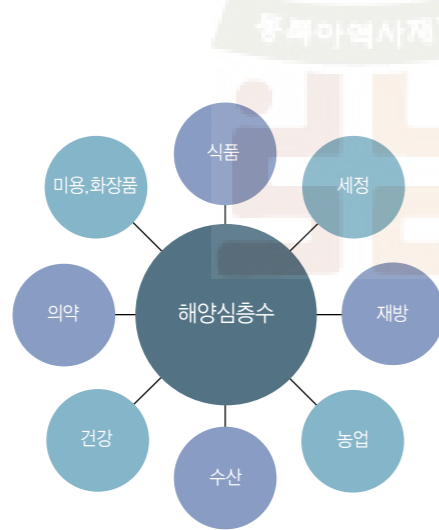
해양심층수의 특징에 따른 활용분야

청정성 : 식수, 수산증양식, 식품 제조

저온성 : 냉방, 냉동 및 발전 등을 위한 해양에너지

부영양성 : 식량, 식품과 소재개발을 위한 식물 배양 및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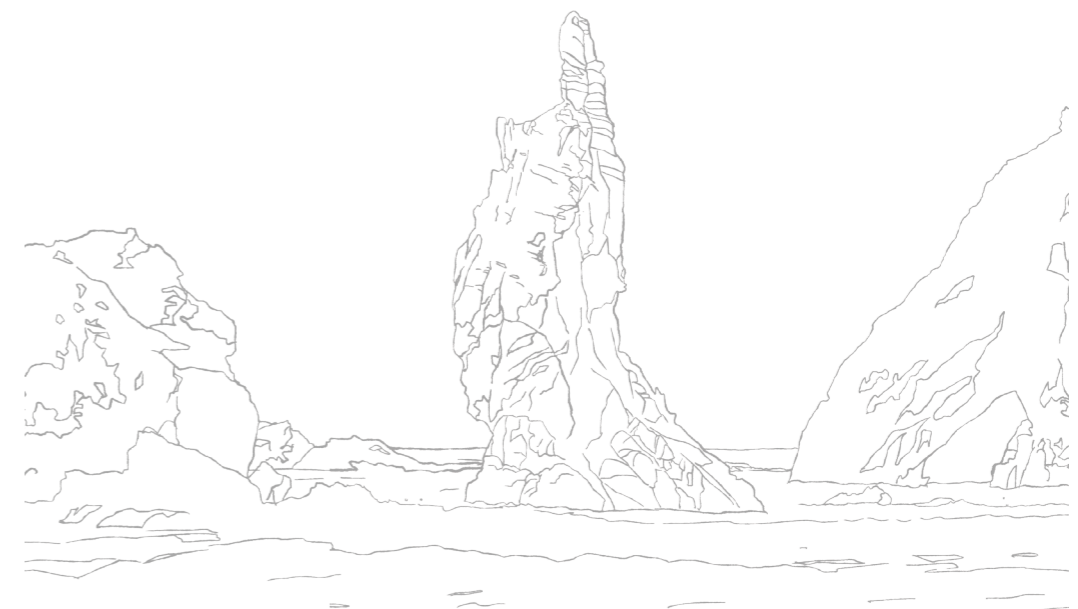
미네랄성 : 소금, 희소금속, 에너지원 등의 추출 및 관련제품 개발



▲ 강원도 고성군 오후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심층수 취수관의 모식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기포 모양의 결정체로 '불타는 얼음 (fire ice)'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정확한 명칭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이나 주 구성 성분이 메탄이기 때문에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불리기도 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 석유의 1.5배, 석탄의 2배가량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청정에너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미래 인류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동해 해저에 국내 가스 소비량 30년분에 달하는 약 6억 톤이 분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
仇水一池泉則雖大旱皆不渴池則
竹津山竹津山北准竹
竹邊竹邊串北准山豆
興興古名府德神古名守
富興古名府德神古名守
冬山竹津山北准竹
津山竹津山北准竹
海中方百里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
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分
此獸國人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

부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 내용체계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육 내용체계

1. 독도 교육의 목적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2. 독도 교육의 목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3. 학교급별 독도 교육의 목표

가.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

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 ① 독도의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 ②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의 역사적, 환경적, 정치·군사적, 경제적 가치 이해
- ③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

나. 중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독도의 역사와 관련된 지도 및 문헌에 대한 이해
- ②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과정과 일본 주장의 허구성 파악
- ③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 능력 신장
- ④ 우리 땅 독도 알리기 활동의 의미와 효과적인 참여 방안 탐색

다.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 ①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역사·지리적 및 정치·군사적, 경제적 의미 파악
- ② 독도 수호 활동의 현황 파악과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 ③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

4. 내용 체계

분류	학습 내용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명의 유래	지명의 변화	돌섬(석도)	돌섬(석도)		
		독섬	독섬		
		우산도	우산도		
		자산도	자산도		
독도의 옛 이름	독도의 명칭(외국)	삼봉도	삼봉도		
		가지도	가지도		
		리양쿠르(프)	리양쿠르(프)		
		다케시마(일)	다케시마(일)		
독도 수호 자료	우리 나라의 독도 관련 문헌	삼국사기(512)	삼국사기(512)	삼국사기(512)	
		세종실록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정상기의 동국전도(19세기초)			정상기의 동국전도(18세기초)
		만기요람(1808)			만기요람(1808)
		조선전도(1846)		조선전도(1846)	조선전도(1846)
		해좌전도(19세기 중)		해좌전도(19세기 중)	해좌전도(19세기 중)
		이규원검찰사 울릉도 개발 건의(1882)			이규원검찰사 울릉도 개발 건의(1882)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	
		일본의 독도 침탈(1905)	일본의 독도 침탈(1905)	일본의 독도 침탈(1905)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1946)
		평화선 선언(1952)	평화선 선언(1952)	평화선 선언(1952)	
		은주시청합기(1667)		은주시청합기(1667)	은주시청합기(1667)
		안용복 조사보고서(1696)		안용복 조사보고서(1696)	안용복 조사보고서(1696)

분류	학습 내용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한국 영토 표기)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한국 영토 표기)	'울릉도 쟁계(죽도 일건)' 관련 사료		'울릉도 쟁계(죽도 일건)' 관련 사료	'울릉도 쟁계(죽도 일건)' 관련 사료
		삼국점양도(1785)		삼국점양도(1785)	삼국점양도(1785)
		조선국교제시말내 탐서(1870)		조선국교제시말내 탐서(1870)	조선국교제시말내 탐서(1870)
		조선동해안도(1876)		조선동해안도(1876)	조선동해안도(1876)
		태정관 지령(1877)		태정관 지령(1877)	태정관 지령(1877)
		일·러전쟁실기의 한국전도(1905)		일·러전쟁실기의 한국전도(1905)	일·러전쟁실기의 한국전도(1905)
독도를 지킨 인물들	독도를 지킨 인물들	이사부	이사부	이사부	
		안용복	안용복	안용복	
		심홍택		심홍택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과 대응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죽도의 날' 지정 (2005)	'죽도의 날' 지정 (2005)	'죽도의 날' 지정 (2005)	
		일본 외무성 '죽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대응		일본 외무성 '죽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대응	일본 외무성 '죽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대응
실효적 지배	경찰청 독도경비대	경찰청 독도경비대의 파견 과정과 배경	경찰청 독도경비대의 파견	경찰청 독도경비대의 파견 과정과 배경	
		시설물	등대	등대	
	천연 기념물	등대	등대		
		독도 주민숙소	독도 주민숙소		
	특정도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		
		특정도서(제1호) 지정		특정도서(제1호) 지정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활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시민운동의 내용과 참여 방안	시민운동의 내용과 참여 방안	시민운동의 내용과 참여 방안	시민운동의 내용과 참여 방안	
위치	행정구역	독도의 주소	독도의 주소		
		수리적 위치	독도의 경·위도 확인하기	독도의 경·위도 확인하기	

분류	학습 내용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치	지리적 위치	지도, 지구본, 구글 맵 등에서 찾아보기	지도, 지구본, 구글 맵 등에서 찾아보기		
		울릉도와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 비교	울릉도와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 비교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		
영역	영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영토	영토	영토	
		영해	영해	영해	
생활	독도와 한반도 관계	배타적경제수역 (EEZ)		배타적경제수역 (EEZ)	배타적경제수역 (EEZ)
		독도와 한반도 본토의 관계		독도와 한반도 본토의 관계	독도와 한반도 본토의 관계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	
지형	모양	독도와 일본의 관계			독도와 일본의 관계
		사진(위성사진 포함), 모식도 등을 통한 모양 파악	사진(위성사진 포함), 모식도 등을 통한 모양 파악		
지형	지형 형성과정	해저지형 (해저 분지, 해산)	해저지형 (해저 분지, 해산)		
		모식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형성과정 이해	모식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형성과정 이해		
기후	기온과 강수	울릉도와 독도의 연중 기온 강수 그래프	울릉도와 독도의 연중 기온 강수 그래프		
		안개	안개일수	안개일수	
생태	동물	괭이갈매기	괭이갈매기		
		바다사자	바다사자		
생태	식물	해국	해국		
		사철나무	사철나무		
자원	수산자원	해류	해류		
		어장	어장		
	지하자원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			
계			45	33	21



5. 독도 교육 내용체계의 활용 방향

-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시 각 학교급별, 학년별 독도 교육 내용의 성취기준과 목표를 제시할 때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 나. 독도 교육 내용체계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에 제시한 독도 교육 내용을 학년별, 과목별 특성에 적합하게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교과서를 구성한다. 다만, 독도 교육 내용 체계표가 학습 내용요소의 제시이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동일한 내용요소가 있더라도 학교 급별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고, 내용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학교급의 내용이 토대가 되어 상위 학교급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 다. 단위학교에서 정규수업 및 계기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시 독도 교육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라. 독도 교육 내용체계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제작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 ① 각 학교급에 적합한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② 교수·학습 자료는 독도 관련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되 학교급별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한다.
- 마. 독도 관련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애정과 수호 의지를 갖도록 지도한다.
- 바. 독도 교육 내용체계에서 제시한 독도 교육 목표의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단순하게 독도 관련 사실을 묻는 평가를 지양하고 독도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탐구력, 비판력 등의 고등사고력과 국토에 대한 애정과 수호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하는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문항을 제작한다.



1.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독도 부속도서 (큰가제바위 및 작은가제바위, 지네바위, 넓덕바위, 김바위, 보찰바위, 촛대바위, 미역바위, 물골, 군함바위, 삼형제굴바위, 촛발바위, 닭바위, 탕건봉, 부채바위, 코끼리바위, 물오리바위, 얼굴바위, 솟돌바위, 독립문바위, 한반도바위, 천장굴) _ 울릉군 14~25

독도주변 3차원 해저지형도 _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7

2.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

삼국사기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2

세종실록 지리지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4

신증동국여지승람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6

팔도총도 _ 서울역사박물관 48

동국대전도 _ 국립중앙박물관 49

만기요람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0

조선전도 _ 독도박물관 52

아국총도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3

해좌전도 _ 영남대학교 박물관 54

울릉도 검찰일기 _ 이해은 동국대학교 교수 5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_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6

평화선 선언 내용이 고시된 '관보' _ 국가기록원 58

은주시청합기 _ 국립중앙도서관 60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번 답변서 _ 동북아역사재단(이미지) 62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_ 동북아역사재단(이미지) 63

원록구명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_ 동북아역사재단(이미지) 64

삼국접양지도 _ 동북아역사재단 65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_ 일본 국립공문서관 66

조선동해안도 _ 독도박물관 67

태정관 지령 _ 일본 국립공문서관 68

기죽도약도 _ 일본 국립공문서관 70

대일본전도 _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71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_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72

조선왕국전도 _ 동북아역사재단 74

조선동해안도 _ 동북아역사재단 75

강릉 _ 동북아역사재단 76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의 울릉도 방문 _ 동북아역사재단(이미지) 82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 _ 독도박물관 83

대한매일신보 _ 한국언론진흥재단 84

황성신문 _ 국립중앙도서관 85

4. 독도와 함께 한 사람들

독도의용수비대 _ 박영희 여사 110~111

독도의 최초 주민 _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 113

독도의 제주해녀 _ 독도의병대 113

기타 사진자료 _ 경상북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반크, 독도수호국제연대 등

5. 영원한 우리 땅 독도

천장굴과 서도, 촛대바위 _ 울릉군 133

ㄱ	맥아더 라인 59, 110	울리부차 75	ㅋ	카이로 선언 38, 99~100
가스 하이드레이트 124, 135	메닐라이 75	울릉도 검찰일기 55	코끼리바위 2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92	메닐라이-올리브차 41	울릉도사적 28	큰가제바위 12, 14	
군함바위 18	물골 17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64, 97		
기죽도약도 70	물오리바위 22	은주시청합기 60, 94	ㅌ	
김바위 15	미역바위 17	이규원 55	탕건봉 17, 20	
김성도 114		이명래 보고서 83	태정관 지령 68, 78	
	ㅍ	이사부 42~43, 54, 106, 108		
ㄴ	보찰바위 16	이사부해산 27	ㅍ	
넙덕바위 15	부채바위 20	인부연표 96	팔도총도 38, 48	
			평화선 선언(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58~59	
ㄷ	ㅅ	ㅈ	포츠담 선언 99~100	
달바위 19	삼국사기 38, 42	작은가제바위 14		
대일본전도 71	삼국접양지도 65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66, 78, 92	ㅎ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40, 56	삼형제굴바위 12, 18, 132	조선동해안도(1857) 67, 75	한반도바위 24, 132	
도해 금지령 62~63, 95~9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8, 59, 72, 87, 91, 99, 110	조선동해안도(1876) 67, 92	해양심층수 134	
독도경비대 106, 112, 116	세종실록 지리지 28, 38, 40, 44, 93	조선왕국전도 74	해좌전도 54	
독도의용수비대 106, 110, 111, 119	숙종실록 96	조선전도 48, 49, 52	허학도 106	
독립문바위 23, 132	숫돌바위 23	죽도고 96	호넷 76	
동국대전도 49	승정원일기 96	죽도기사 96	호넷암 41	
동국문헌비고 93, 96	시마네현 고시 78, 80~82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96	홍순철 106, 110	
동국여지승람 40, 46	신증동국여지승람 46, 48, 54, 93	증보문헌비고 93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102, 126	
	심흥택 40, 82~85, 106, 109	지네바위 14		
ㄹ	심흥택해산 27			
량코도 40~41		ㅊ		
리양코루도암 40~41	ㅇ	참정대신 지령문 3호 83		
리양쿠르 록스 76	아국총도 53	천장굴 25, 133		
리양쿠르암 41, 73	안용복 62, 64, 96~97, 106, 108	춧대바위 12, 16, 132~133		
	얼굴바위 22	최종덕 113		
ㅁ	여지지 42, 51	춧발바위 19		
만기요람 38, 50, 93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 38, 72, 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움 주신 분들

대표집필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편집기획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윤지훈 동북아역사재단

자문 및 감수

김은희 송화초등학교

이희원 원묵중학교

구종형 울곡고등학교

윤옥경 청주교육대학교 지리교육과

김훈이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대책팀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교육 참고 자료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09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15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65-2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독도 관련 주요 사건 연표

